

雪門

불기 2555년

겨울호

통권 제119호

雪門僧伽大學



무상함을 알고 정진하라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얼마 전 전국비구니회장 이임 다음날, 우리 강사스님들이 이임을 기념하여 나들이 하자고 하면서 나를 안내하여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따라 포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역사와 온화하게 부는 바람이 섬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곳이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갤러리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앞에 두고 또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드물게 켜놓은 작은 촛불만을 등대로 해서 원편으로 돌아서 텅 빈 둑근 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원편으로 나아가서 네모난 방, 다시 원편으로 직사각형의 방들을 돌아았습니다. 맛밋하기가 상온에 놓아 둔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원쪽으로 돌아서 자꾸 만나는 텅 빈 공간들 … 왠지 모르게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놀라운 장면 ‘화면 위에 한 그루의 벌거벗은 나무’ 와 마주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때부터 싹을 틔우더니, 꽃이 피어, 무성해지더니, 낙엽을 떨구고는 다시 벌거벗었습니다. 눈 깜짝 할 순간이었습니다. 「금강경설의」에서 함허 스님의 계송, “梅枝片白 足知天下春, 梧桐一葉 可知天下秋(매화 가지의 한 송이 흰꽃은 족히 천하의 봄을 알리고, 오동잎 하나 떨어지면 천하가 가을임을 알림이다)”가 만져지는 것 같아서 몇 번이고 함께 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십년 후, 이십년 후의 일이 아니라 화면 위에 나무 일주기처럼 빠른 것입니다. 이런 우주 진리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 정진하기를 계을리해서는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경전 「숫타니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기를 권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단정히 앉아 명상하라.

잠만 자면 그대들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피로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잠에 빠지나니.

일어나라.

그리고 단정히 앉아 명상하라.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하여 오직 정진하라.

죽음의 왕은 그대들이 계을러서 자신의 힘에 굴복한 것임을 알고 있다.

스스로를 미혹에 빠지게 하지 말라.

그대들은 애착에 사로잡혀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이 집착을 초월하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세월을 허송하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비통을 맛보리라.

게으름은 먼지나 때와 같다.

먼지나 때는 게으름에서 비롯된다.

힘써 닦아 지혜로 자신에게 박힌 화살을 뽑아버려라.

우리 다함께 열심히 정진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불자가 됩시다. ☺

오직 주인이 될 때

혜국 / 석종사 선원장

태양광명은 1초 1분도 쉬지 않고 광명을 발하는데 왜 우리는 어제 저녁 깜깜한 밤을 지냈습니까? 태양광명 입장에선 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왜 밤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구가 스스로 등을 돌려 앉아 밤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부처광명이 1초 1분도 쉬지 않고 빛을 발하는데 번뇌, 죄업, 망상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래 성불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번뇌 망상을 지어서 성불자리에서 돌아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오직 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을 믿고 출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래 성불이다' 하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지식을 쌓고 과학기술을 향유한다 해도 과거 우리 조상들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밖에서 찾아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성불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옛날엔 '몸통'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몸'이라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바닷물에 담근다면, 각자 생긴 모양대로 바닷물이 담깁니다. 여기서 그릇이 깨지면 그릇 입장에선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 바닷물 입장에선 온 적도 간 적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성불도리입니다.

우주법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따로 있고 우주법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법계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길이 조금도 없습니다. 배추를 심으면 우리가 키웁니까.

대지가 품어주고 햇볕이 내리쬐고 허공이 감싸 안고 비가 내려와 땅을 적시고 곧, 지 수화풍 4대 요소의 보시공덕으로 이 우주법계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주법계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성불도리는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삭발염의 한 하루하루가 부처의 삶 아닌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젊었을 적 연비를 하고 태백산 도솔암에 들어가 장좌불화를 시작했는데 번뇌 망상이 꼭 그대로여서 1년 2개월간 읊기도 많이 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안의 번뇌 망상은 내가 만든 것이니 내가 책임져야 함

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릇에 차가 꽉 차 있으면 무엇도 채울 수 없습니다. 빈 그릇이 되는 것, 이는 허공입니다. 허공은 본래 있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허공이었고 다만, 망상이 꽉 차 있어서 쓸모없는 것이지, 본래 부처라는 빈 그릇에는 죄업도, 망상도, 때도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릇 속에 있는 차 있는 모양이 있으니 쏟아부어 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몸통 그릇에 꽉 차 있는 번뇌 망상은 모양이 없으니 쏟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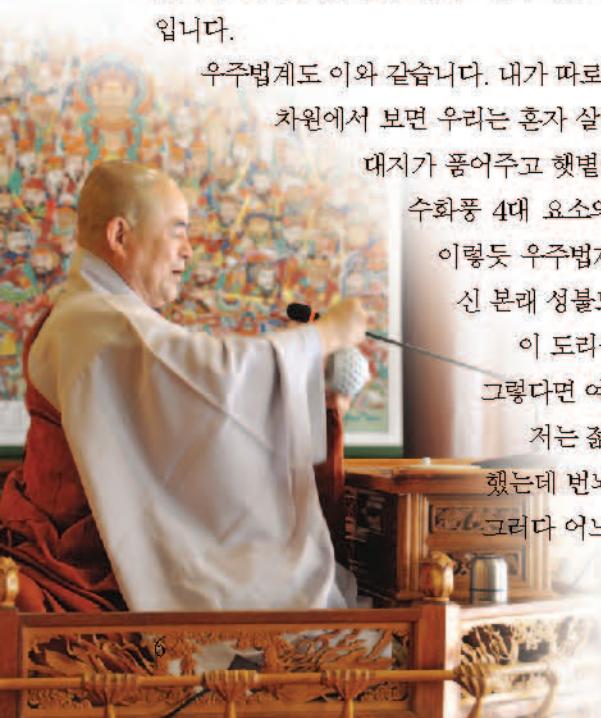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번뇌 망상을 삶아하지 말고, 화내는 마음, 우울한 마음, 성내는 마음, 그것 자체를 불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한평생 가장 소중한 일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 망상을 텅 빙 허공이 되도록 의식 전환이 되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는 자리입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땃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고, 저 밝은 보름달 천만 곳에 뚫고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아부 스님의 계송과 같이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상태입니다.

발심출기해서 어디에 가 수행하든 내 안에 번뇌 망상이 전환된 만큼 공부가 되지 바깥 조건에 따라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발심이 됐는가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이번 결제에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번뇌 망상은 내 텏이지 누구 텏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인 삼으십시오. 오직 주인이 될 때에만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텅 빙 허공성'이라고 하는 조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발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 다지는 것을 '결제'라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깨어 있는 수행자 되어 스님들 어깨에서 부처님 광명이 빛나길 바랍니다.

원천대는 강원 4년 동안 배우는 부처님 금구성언
내 비록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 마음 마음 밭에 인을 심어, 씨앗 되어
부지런히 발심 발심 재발심이라는 거름으로 꽂이 퍼고 열매 맺어
나고 죽고 죽고 나는 생사운회 방황하던
길고 긴 이 생에서 흘연히 벗어나서 필경성불, 속불해명하여
크고 큰 부처님 은혜 보살행이 되어 세세상행 보살도 하여지이다. ☯

〈운문사 대웅전에서 있었던 혜국 스님의 신묘년 동안거 결제법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능엄경』에 나타난 마음의 논증 분석¹⁾ IV

명법 / 운문승가대학 강사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능엄경』의 특징
- III. 마음의 논증
 - 1) 『능엄경』의 서술 방식
 - 2) 七處徵心章의 분석
 - 1. 첫 번째 주장
 - 마음이 몸 안에 있다(在內).
 - 2. 두 번째 주장
 - 마음이 몸 밖에 있다(在外).
 - 3. 세 번째 주장
 - 마음이 根 속에 있다.
 - 4. 네 번째 주장
 - 밖음을 볼 때는 밖을 보는 것이고 어둠을 볼 때는 안을 보는 것이다.
 - 5. 다섯 번째 주장
 - 합하는 데 따라 마음이 있다.
 - 6. 여섯 번째 주장
 - 마음이 중간에 있다.
 - 7. 일곱 번째 주장
 -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 IV. 마음에 대한 서양철학의 몇 가지 이론
 - V. 맷음말

IV. 마음에 대한 서양철학의 몇 가지 이론

1) 이 논문은 2000년 필자의 박사과정 중 기말과제로 작성되었으며 2006년 『불교학연구』 제13호에 발표되었던 글로서 비교적 긴 시간이 흘렀지만 불교학연구회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다시 실는다. 학인스님들의 경전 혼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불교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없었던 『楞嚴經』 원문을 첨가하였다.

위의 七處徵心은 마음이 존재하는 곳을 부정하여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아난의 주장은 우리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통속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이 명제가 내포하는 내용은 단순하지 않다.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전제되어 있는데, 마음의 개념, 몸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자아동일성이 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형성하며 모든 종교에서 전제되고 있는 문제들이며 동시에 현대 심신 철학의 중요한 주제를 이루는 것들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무수하게 많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몸과 대립시켜 생각하며 이때 대상으로서의 몸의 확실성만큼 대상으로서의 마음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학적 입장에 설 때 그 확실성은 의심스럽게 된다. 어떤 철학자들은 마음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다른 철학자들은 그것이 단순히 복잡한 사건이나 상태, 속성, 경향의 묶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철학자들은 마음이 일종의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마음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유일한 실체이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과 동일한 것인가에 따라 관념론과 유물론으로 나누어진다.

전통철학의 입장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플라톤처럼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은 단순하고 신성하며 불변의 것인 반면 몸은 유한하고 복합적이며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태어나기 전 순수한 영혼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알고 있던 것을 상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은 정신으로서의 존재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의 구별을 주장하는 이원론이며 이때 마음은 우리 자신과 동일시된다. 즉 우리 자신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입장은 마음이 진정한 실체가 되므로 관념론이라 불린다.

근대 기계주의적 자연관의 정초를 마련한 데 카르트는 몸과 마음을 서로 다른 실체로 보았다. 심적 실체인 마음의 본질은 사유이며 물리적 실체인 물리적 대상의 본질은 공간적 연장성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공간적 차원이 없고 물질은 의식이 없다. 데카르트 이론의 한계는 비교적 분명한데, 육체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서 단순하고 불가분할적이며 불멸한다는 의미의 영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나의 육체는 나의 마음과 분리되어 인간의 단일성이 포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비물질적 마음이 물질적 몸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몸의 병은 정신의 고통을 낳고, 비물질적인 마음이 바라고 결정한 것이 물질적인 몸을 움직이게 한다. 만약 마음이란 실체가 본성상 물질이란 실체와 전혀 다르다면 어떻게 마음이 몸에 대해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는가? 그럼에도 데카르트는 인간은 몸이라는 물질적 실체와 마음이라는 심적 실체가 결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양자가 인과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신의 상호관계와 심적 인과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마음의 작용을 몸에 전하는 미세한 물질적 실체인 송과선이란 제3의 요소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통속적 믿음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심적 실체라는 마음의 개념은 실제로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비해 덜 극단적인 형태의 통속적인 실체 이원론이 있다. 이것은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아난의 견해에 해당하는데, 이때 마음은 엄격한 의미는 아니지만 몸과 다른 실체이며 의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은 심신의 관계를 두뇌의 에너지 교환 정도로 생각한다.

이 이론은 사실상 마음을 뇌의 작용으로 보아 마음의 작용을 물리적 에너지 관계로 환원시킴으로써 마음의 특수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유물론이 된다.

마찬가지로 유물론은 심적 현상을 두뇌의 물리적 상태로 환원시킨다. 말하자면 심리 상태나 과정의 각 유형들은 두뇌나 신경조직의 물리적 상태나 과정의 어떤 유형과 수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아직까지 두뇌의 작용이나 신경조직의 기능이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것이 밝혀지면 마음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심리 상태의 본질적인 또는 결정적인 특성은, 그런 상태가 신체에 가해지는 환경적 영향들과 다른 유형의 심리 상태들, 그리고 신체적 움직임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 대해 갖는 인과적 관계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통증은 대개 신체적인 상태나 외상으로부터 나타난다. 그것은 걱정과 피로움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실천적인 행위를 야기하고 그 결과 상처 부위를 치료하도록 한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이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 모든 상태가 '아픔'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의 심리 상태들도 간각적 입력과 행태적 출력을 연결하는 내적 상태들의 복합적 체계에서 그것들이 갖는 고유한 인과적 역할에 의해 정의된다.

그런데 기능주의는 유물론이나 행태주의와 달리 심적 현상을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한다. 기능주의는 모든 심리 상태들에 대한 적합한 성격 규정은 그것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다른 여러 다양한 심리 상태들에 대한 언급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능주의는 전통적인 환원론은 거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더 약한 형태의 환원론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어진 유형의 심리 상태 각각의 일회적인 예들을 어떤 물리적 체계 또는 그것과

는 다른 체계의 어떤 특정한 물리적 상태와 수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기능주의는 인공지능에 적용될 수 있는데 만약 심리 상태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내적 체계를 갖는 전자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 체계들도 심리 상태, 다시 말해 마음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능주의는 추상적 기능체계를 상정하고 그 후 비슷한 상황 아래 인간의 행태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체계를 실험하는 인지과학자들이나 인공지능 분야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기능주의 역시 궁극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물리적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물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관념론자들은 마음만 존재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관념론은 물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어떤 관념론자도 물리적 대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관념론자는 지각되지 않거나 생각되지 않은 외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대상은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의식 안에서만 존재한다. 만약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존재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존재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심적인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마음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이론들은 그것이 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 유물론이든 관념론이든 실체로서 또는 고정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서 마음을 규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V. 맷음말

마음을 정신적 실체라고 상정하는 경우 지각 경험이나 기억의 연속성에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플라톤의 영혼이나 브라흐만교의 아트만을 상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불변하는 정신적 실체를 의미한다. 만약 마음을 물질적 과정이라고 하면 마음은 육체적 활동과 동일한 것이 되어 마음은 몸이 존속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마음의 활동은 모두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되어 마음의 독립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첫 번째 입장은 때를 경우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상주론이 되고 두 번째 입장은 때를 경우 몸과 더불어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므로 단멸론이 된다. 불교는 두 입장을 모두 배척하고 마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아론, 즉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대 심리철학은 이 점에서 불교와 유사한 점이 있다. 마음을 단일한 성질을 가진 실체로 보지 않고 여러 심적 현상의 총합으로 보는 방식은 마음이란 기능만 있을 뿐 마음이란 실체가 없다는 불교적 이해에 근접한다. 마음을 연기적 발생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에 나타난 기능주의적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불교와 비교하기도 한다.²⁾ 그러나 기능주의의 기본 관점은 의식세계는 물질세계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두뇌의 기능 없이 의식의 기능은 있을 수 없으며 두뇌의 기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면 의식의 기능도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원주의에 입각해 있다. 또 그것은 연기관계를 원인과 결과라는 기계적 인과관계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불교는 기계주의적 결정론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능

주의적 인과론의 입장에서 無我를 주장하는 것³⁾은 空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더구나 불교는 연기적으로 구성되는 세계를 궁극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妄(현상)의 세계이지 眞의 세계가 아니며, 그러므로 이 세계를 실재하는 것으로 여겨 집착할 경우 번뇌와 고통을 낳게 된다. 만약 마음이 이런 과정에 관계되어 구성된 것이라면 해탈이 이루어질 때 마음은 부정되어야 하며 해탈은 마음이 없는 것, 즉 모든 인식을 거부하고 나무나 돌과 다름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공에 대한 단멸론적 견해를 惑趣空이라 하며 그 허무주의적 위험성 때문에 유식불교에서는 識이 있다고 주장하며 여래장사상은 如來藏을 인정하였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몸과 몸속에 깃들어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으로서의 세계와 주체로서의 마음이 분리되고 마음은 의식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능엄경』에서는 이처럼 반연된 마음, 식으로서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지만 진정한 마음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칠처징심장에서의 마음의 부정은 단멸론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진정한 의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참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참마음은 대상을 반연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산물인 대상과 더불어 있는 전체성이다. 이것을 『능엄경』에서는 識精元明한 菩提涅槃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여래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논증은 칠처징심장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칠처징심장에서 식심으로서의 마음이 어떻게 논파되고 있는가만 주제로 삼았으며 여래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룬다.

유식불교는 공성을 심리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혔다면 『능엄경』이 취하는 전략은 존재

론적이다. 그 분석 방식은 논리적인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용수의 귀류논증법과 진나의 宗·因·諭 논증식을 사용하여 마음이 몸속에 있지 않고 그 밖의 다른 곳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것은 마음의 존재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생각이며 자아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낳는 근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논증은 바로 마음의 비실체성과 마음의 비존재를 동시에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육체의 존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 그것은 이미 불교의 전제에 세계의 존재는 유식이라고 확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심신의 상호관계에 대한 해석으로 본다면 핵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에는 심리철학에서 논증되는 마음과 몸의 상호관계라는 문제가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다. 이는 불교와 심리철학의 문제의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심리철학의 가정, 즉 심리적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문제 설정이라는 판단도 내포되어 있다. 이 점은 불교가 현대 심리철학에 대해 유의미하게 던질 수 있는 발언인지도 모르겠다. ●

참고 문헌

- 交光真鑑, 「大佛頂首楞嚴經正脈顯示」, 『大正藏』, 274
, 「大佛頂首楞嚴經正脈疏」, 『大正藏』, 275
소홍렬, 『자연주의적 유신론』, 서광사, 1992
이효범, 『심리 철학의 근본 문제』, 소나무, 1990
김재권, 하종호 외 역, 『심리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7
스티븐 프리스트, 박찬수 외 역, 『마음의 철학』, 고려원, 1995
처치랜드, 석봉래 역, 『물질과 의식』, 서광사, 1992
노현웅, 『능엄경의 선사상 연구』, 『한국불교학』, 1993

2) 소홍렬, 「불교와 인지과학」, 『자연주의적 유신론』, p.56ff.

3) 소홍렬, 「불교와 의식의 과학」,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고려대장경연구소 편.



88 오성 스님은 제주 출신으로 1988년 김녕 백련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지난 1992년 해인사 강원과 1996년 지리산 실상사 화엄학림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제방선원(諸方禪院)에서 안거 수행하고 해인사 강원의 학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를 떠나 제방에서 운수남자의 길을 걸으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향은 길이었다

오성 스님

눈이 오는 겨울, 여행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옵니다.
걷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하는 목적지나 뚜렷한 이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의 고향은 길이었던 것 같아
언제부턴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고향은 길에 있습니다.
마을이나 집이란
우리가 잠시 길을 걷다 피곤하여 걸터앉은
인생의 쉼팡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쉼은 잠시의 편안일 뿐
안주와 집착, 소유와 갈등을 키워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떠나려 할 때 - 나아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미련과 아쉬움이라는 애착의 끈만
더욱 단단히 온몸을 움켜맬 뿐...
진정한 쉼은 길 위에 있습니다.

걸음을 옮겨 길 위에 설 때는
혼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걷기만 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그동안 분주히 떠돌던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길이 벗이 될 줄 쯤이면
고향을 만나게 됩니다.

길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성찰이란 고독의 불빛입니다. ☺

즉 믿음과 결합된 이해를 뜻한다.

信解行證에 관한 고찰

-『華嚴經』을 중심으로 -

선유 / 대교파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信解行證과 『華嚴經』
 - 1. 信 - 믿음
 - 1) 信의 불교적 정의
 - 2) 믿음의 대상
 - 3) 『화엄경』 속의 信의 요소
 - 2. 解 - 이해
 - 1) 解의 불교적 정의
 - 2) 『화엄경』 속 解의 요소

- 3. 行 - 실천
 - 1) 行의 불교적 정의
 - 2) 『화엄경』 속 行의 요소
- 4. 證 - 깨달음
 - 1) 證의 불교적 정의
 - 2) 『화엄경』 속 證의 요소

III. 맷음말

2. 解 - 이해

1) 解의 불교적 정의

解의 사전적 의미는 '풀다, 벗다, 깨닫다, 설명(說明)하다'의 의미로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적인 입장에서 解는 信解,

『華嚴經疏』에서 清涼澄觀의 말처럼 '信만 있고 解가 없으면 無明을 증장하고 解만 있고 信이 없으면 또한 邪見을 낸다.' 했듯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있어야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불교적 解는 믿음에 기반을 두어 불교의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마음이 굳건해진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2) 『화엄경』 속 解의 요소

『화엄경』 1회 6품에서 비로자나불의 원만한 과보를 말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과 신심을 일으켰다면, 2회 6품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의심을 밝혀 이해를 돋는 과정이다. 특히 「보살문명품」에서는 9수(首)보살이 문수보살과의 문답을 통해 중생이 가진 보편적 의혹을 해소하고 있는데 이 보살들의 10가지 문답을 '집심심(十甚深)'이라 한다.

즉 각수보살은 연기집심을 보이고, 재수보살은 교화집심을, 보수보살은 업파집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중생의 현실을 잘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덕수보살은 설법집심, 목수보살은 복전집심, 진수보살은 정교(正教)집심으로 불교학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법수보살은 정행집심, 지수보살은 조도집심으로써 교화에 의한 수행을 보이며, 현수보살은 일승집심, 문수보살은 불경제집심으로 구경불과의 불가사의함을 바로 알도록 설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청정한 신심(淨信)을 개발토록 하였다. 계승을 통해 문답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음의 성품(心性)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갖가지 차별을 보는가?

법의 성품 본래 남이 없지만 시현하여 남이 있으니

이 가운데 능히 나타낼도 없고 또한 나타난 물건도 없도다.

부처님의 교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이 보고 어찌하여 즉시에 온갖 번뇌의 속박을 끊지 못하는가?

마치 나무를 비벼 블을 구함에
블 블기 전에 자주 쉰다면
블기 운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에으론 자 역시 그러하도다.

부처님 말씀처럼 만약 중생이 정법을 받아지니면 일체 번뇌를 끊을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정법을 받아지니 되 끊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남의 보물을 세어도
스스로는 반전도 없는 것같이
법을 닦아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들은 것도 그러하도다.

불법 가운데는 지혜가 제일인데 여래께서는 무슨 까닭에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찬탄하고 혹은 내지 지혜를 찬탄하며 자비회사를 찬탄하시는가?

인색하면 보시를 찬탄하고
금지함을 깨뜨리면 쇄를 찬탄하고
성 잘 내면 인욕을 칭찬하고
나태하면 정진을 찬탄하시도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길로써 벗어나 여원(出離)을 얻으셨는데 지금 보니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 국토에 있는 온갖 일이 여러 가지로 같지 아니한가?

문수여, 법이 항상 그리하여
법왕은 오직 한 법뿐이니
일체 철림 없는 사람은 一切無碍
한 길로 생사에서 벗어나니라.

3. 行 - 실천

1) 行의 불교적 정의

행이란 信解를 통해 확고히 결정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불교의 行에는 두 가지 목적이 따르는데 첫째는 믿고 이해한 바를 체득하기 위한 修行이고, 둘째는 이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菩薩行(혹은 慈悲行)이다. 먼저 修行이란 '되게 하는 것', '바꿔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나'에서 佛法에契合하는 '나'를 향한 점진적 변화를 뜻한다. 마치 일과 나비가 같지 않지만 일에서 나비가 나오듯이 중생과 부처는 같지 않지만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은 알 속에 나비가 없고 중생 속에 부처가 없지만 마치 일이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하듯 중생 역시 미혹을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 부처로 변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래 부처'라 함은 기만히 있는 중생 안에 부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존재'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쪽에 가깝다. 이 같은 가능성이 수행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둘째, 菩薩行의 菩薩은 'bodhisattva, 구도자'라는 뜻으로 대승의 수행을 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菩薩의 관념이 대승불교에서 처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초기불교에서는 前世, 혹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부처님을 보살이라 부르고 있고, 설일체유부의 논서 속에는 보살의 이타행을 종종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승불교의 핵심이 '보살행'이라 하는 것은 이타행을 목표로 삼는 구도자의 정신이 대승불교를 특징짓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이 낮고 열등하여 그 마음이 염증에 빠진 자는, 성문¹⁾을 보임으로써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만일 또 다른 중생이 있어, 여러 根이 조금 명철하고, 인연의 법을 바라는 자에게는 벽지불²⁾의 길을 설명하노라. 만약 사람이 根이

명석하고, 중생을 넉넉하게 하려고 하며, 대자비심이 있는 자에게는 보살의 길(대승)을 설법한다. 만일 無上心이 있으며 결정하여 大事を 원하는 자에게는, 불신(佛身)을 보이고 무량의 불법을 설교하느니라.(『華嚴經』第26卷, 大正藏 9p. 567下.)

2) 『화엄경』 속 行의 요소

『화엄경』의 行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세간 품」³⁾에 보혜보살이 불화장엄삼매에서 나온 보현보살에게 “어떤 것이 보살의 의지며, 기특한 생각이며, 행이며, 선지식이며, 부지런한 정진이며, 마음이 편안함을 얻음이며, 중생을 성취함이며, 계율이며, 스스로 수기 받을 줄을 앎이며, 보살에 들어감이며, 여래에 들어감이며,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내지 여래의 반열반을 보이십니까?” 등 이백 가지를 묻자 보현보살은 한 가지 질문에 열 가지 대답을 통해 답하여 모두 이천 가지의 수행방법을 밝히고 있다. 즉, 십신·십주·십행·십회향·십지·등각·묘각 등 모든 지위를 포함한 일체 보살행을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보임으로써 무엇이 보살마하살의 의지(依支)인가부터 무엇이 보살의 행이며, 선지식이며, 내지는 어찌하여 여래 응공 정등각께서 반열반 하심을 보이셨는지를 설하고 있다. 모든 보살도를 총괄하면서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경계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살의 열 가지 의지해야 할 과보(依果). 기특한 생각·선지식·근수정진(勤修精進) 등은 지면상 생략하고, 보살의 行法에 대해서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오로지 바른 법(正法)

1) 聲聞, 소승의 수행자.

2) 隊支佛, 독선적으로 깨닫는 사람.

3) 이세간이라는 의미는 ‘세간을 떠난다, 세간을 여원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말한 이세간은 세간을 등지고 여남이 아닌 세간 속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 경계를 의미한다. 때문에 「이세간품」 다음에 오는 「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에서 ‘법계에 들어간다.’라 함도 다시 들어갈 법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해주, 『華嚴의 세계』, 민족사, 1998.)

을 구하게 하는 行

- 2) 선근(善根)을 완전히 성숙하게 하는 行
- 3) 일체의 계율을 잘 배우는 行
- 4) 일체의 선근을 기르는 行
- 5) 산란하지 않은 일심으로 삼매를 닦는 行
- 6) 일체 지혜를 분별하는 行
- 7) 일체의 닦을 바를 닦아 익히는 行
- 8) 일체의 세계를 장엄하는 行
- 9) 선지식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行
- 10)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行

4. 證 - 깨달음

1) 證의 불교적 정의

불교 수행의 마지막 단계로써 증(證)은 불교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이해와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마지막 결과이다. 혼히 ‘증험(證驗)’ 혹은 ‘증득(證得)’이라고도 표현한다. 證得이란 의식적인 信解行의 차원을 뛰어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我相과 더불어 人相, 衆生相, 壽者相이 무너지고 主客도 사라진 寂靜한 경지에서 ‘일체 경계는 일심(一心)’이라는 지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一心의 지혜를 증득하면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광대한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게 되어 일심의 바다에서 證發心으로 발보리심(發菩提心)을 완성하고자 방편의 지혜로써 화향의 궁극에 이르면 이것을 마침내 成佛이라 이름 한다.

2) 『화엄경』 속 證의 요소

『화엄경』에서 證에 해당하는 마지막 제9회의

「입법계품」⁴⁾은 내용 전체가 보현행을 설하고 있다.

입법계⁵⁾의 법이 곧 ‘보현행의 실천’인 셈이다. 이는 선재동자의 구법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보리심을 발한 후에 보현행을 빨리 원만 성취하는 법을 문자, 문수보살은 선지식을 찾아가도록 한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찾는 수행과정은 보현행의 탐구에 있고, 마지막에는 처음 만났던 문수보살⁶⁾을 다시 찾아 법을 청해 듣고 최후에 보현보살을 만나 그의 설법을 듣고 보현의 행원과 부사의한 해탈경계를 성취하여 마침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입법계품」은 대비이타(大悲利他)의 대승보살행인 보현행을 주목적(主目的)으로 설하고 있다.

선재동자의 구법과정이 문수보살에서 시작해서 보현보살에 이르러 마무리되어 깨달음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뒷받침된 올바른 신앙에 의해 진리의 세계를 확인하고, 그 세계를 실현하려는 여러 가지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은 반야의 지혜에 의한 보살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실증(實證)해 나아가는 법을 설하고 있다. 즉 「화엄경」에서 證이란 현실세계 속에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III. 맷음말

예로부터 화엄기들이 방대한 양의 「화엄경」을 신해행증으로 체계화시켜 각 품을 분류했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을 주제로 한 「현수품」은 解에 해당하는 곳에서 나오고, 證에 해당하는 「입법계품」 속에는 신해행증이 모두 뒤섞여 있다. 信에 해당하는 1회 6품 역시 믿음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解行證을 모두 설하고 있다. 내용과 전개상 순차적으로 신해행증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모든 품이 신해행증을 더불어 설하고 그것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신해행증이 서로 더불어 실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실현을 무한히 지속 반복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끝없는 행의 전개(展開)를 강조하기 위해 「화엄경」이 이토록 끝없이 신해행증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80華嚴』, 『大正藏』
『大方廣佛華嚴經疏』, 『大正藏』
『우리말번역 화엄경』, 민족사
『華嚴의 세계』, 민족사

4) 「입법계품」에 해당하는 범어의 원래 명칭은 간다부하(gandavyuha)로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대체로 ‘여러 가지 꽃으로써 아름답게 장식한다. [雜華嚴飾]’는 의미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53선지식을 각각 식물의 꽃에 비유하여 그것을 경전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53인의 선지식들은 각각 자신들의 생활영역에서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 보살행을 실천하여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꽂아워 낸 존재이기 때문이다.

5) 법계라고 하는 말은 진여·제법실상·실체(實體)와 같은 불교용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진리의 세계 혹은 진실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법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깨달음을 성취한다’ 또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법계는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며, 그 경계는 바로 해탈 열반의 경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사의한 해탈이라고 한 것은 「입법계품」에서 설하고 있는 해탈 열반의 성문의 수행도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바로 성문의 수행도에서 말하는 열반은 혼탁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서 얻는 것이지만, 보살도의 해탈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현실을 초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사의한 해탈이야말로 부처님의 경계이며, 이것에 순응하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현의 행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제를 통해서도 「입법계품」의 내용이 대승불교의 입장장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선재동자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가 미륵불인데, 그는 선재동자를 다시 문수보살에게 돌려보낸다. 53선지식의 처음과 끝이 문수보살이라는 것은 문수보살은 여행을 떠나는 원인인 동시에 출발점이고 또한 결과이자 여행의 중착역인 셈이다. 다시 말해, 문수보살은 초신의 단계와 구경(究竟)의 지혜, 그 둘을 모두 상징한다. 그래서 화엄학자들은 혼히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믿음과 깨침의 불가분성이라고 본다.

낭만에 대하여

- 이것은『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독일어로 읽고 싶어서 대학의 독문과를 기꺼이 지원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

은광 / 운문송가대학 강사

‘生我者는 父母요 成我者는 朋友라’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성장시켜주는 것은 바로 친구이다.

참으로 그러하다.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친구들을 보려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전형적인 전주 아이였고 우리 친구들은 장수, 오수, 임실 등 모두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온 시골 출신들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몇 푼 되지도 않았던 수업료이지만 그 당시는 제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를 다그치곤 하셨다. 난 그럴 때면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서 있다. 그 옆으로 선생님이 다가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가 고추 팔아서 준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무도 다행스럽게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고 썰렁하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내 성격이라면 그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으리라. 하지만 친구는 그런 것쯤은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것을 기난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도시로 학교를 보내준 사실에 감사했고, 농사짓느라 힘겨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공부도 엄청 잘 했다. 친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친구의 명랑 쾌활함과 유머 감각은 나에게 감동이었고 자랑스러움이었다. 한참 예민한 우리들의 ‘소녀시대’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 시험기간이라서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에도 친구는 농사일을 도우러 토요일이면 시골에 내려가곤 했다. 시골집에 다녀올 때면 밤이나 땅콩, 우수수를 삶아왔다. 그리고 지난 주말 시골에서 있었던 사건사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언니가 고급 양고라 스웨터를 할머니께 사다드렸단다. 할머니가 보들보들한 스웨터를 오리고 누벼서 밤새 동그랗고 예쁜 요강깔개를 만들어 놓은 이야기는 완전 대박이었다. 우리들은 박장대소에 책상을 두드리며 웃었다.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시골의 일상들은 참으로 따뜻했다. 그러한 따스함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난 마음 깊이 친구들을 좋아했고 동경했고 또한 존경했다.

햇세 · 괴테 · 레마르크 · 루이제린저 · 까뮈 · 사르트르 · 앙드레지드 · 생텍쥐베리 · 푸쉬kin · 톨스토이 · 도스토예프스키 등등의 작가들의 작품은 친구들과 함께 서로 돌려가며 밤새 읽었던 우리들의 필독서였다. 해



지는 저녁노을을 보며 가슴 시리게 감동하고 또 감동하던 그 시절 친구들과 같이 보고 들었던 수많은 책과 음악과 이야기들로 우리 모두의 정신세계는 풍요로웠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우리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나 진지한 토론은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나의 출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시험 스트레스’와 ‘고3’이라는 타이틀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싫지만 그 시절 우리에겐 분명 낭만이 있었고 더불어 철학이 있었다.

스님이 되어 출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옛 친구들을 그리워한다. 나는 선생님에게 서보다 친구들에게 배운 것이 100배쯤 많다. 그들은 따로 수행이 필요 없을 만큼 성숙한 아이들이었고, 심성이 고왔으며, 인간적이었다.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그것은 자연과 가까이 허과 함께하는 이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감동스러움이었던 것이다.

밭을 매고, 고추를 따고, 불을 때서 밥을 하고, 쑥을 캐고 하는 일들을 나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서 처음으로 해봤다. 친구들은 이미 어린 시절 자연과 함께하며 터득한 넉넉함과 신비함을 나는 그들보다 20년이나 늦게 체득했던 것이다. 내가 스님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땀 흘리며 땅볕에 일하는 운문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참 한심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들로 머리가 복잡한 그런 사람. 씨앗을 뿌려 거기서 쑥이 나오고, 배추도 되고 시금치도 된다는 사실이 이 우주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였을까.

친구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어른스러움과 선량함)에서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자비수행이 무엇인지, 인욕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자연과 이웃과 할머니에게서 자비와 利行과 同事를 배워 그것들이 그대로 삶의 뿌리가 되어 있었음을. 맨날 수행을 이야기하고 수행을 친탄하지만 수행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단 한 번도 수행을 이야기 하지 않지만 진정한 수행자의 삶도 있다. 그렇게 이미 닦여진 심성의 소유자들이 나의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족했던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었다.

‘生我者는 父母요 成我者는 朋友라’

새해엔 모처럼 친구들에게 엽서 한 장 띄워야겠다. ☺

佛事

지문 / 대교파

“보살님! 땅, 절에 두고 가요.”

“너는 스님 일이나 도와주면서 좀 있어라.”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교반 지문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 말에 절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일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있겠나하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한 생활은 저의 착각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절은 은사스님의 큰 원력으로 불사는 대웅전만 지어진 상태였고 국락전과 요사채는 이제 고작 터만打好 놓은 상태였습니다. 몇 년에 걸친 끊임없는 불사는 제가 절에 들어온지 8년째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 물었습니다. “짐이 즉위한 이래 절을 짓고 탑을 세우며 경전을 많이 내었는데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하였다. “무(無)”

저는 이 자리에서 달마대사가 ‘無’라고 한 그 불사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사(佛事)란, 부처님을 위하여 불가(佛家)에서 행하는 일로 사찰의 건조, 불상의 조상, 불화의 조성 등을 가리키나 넓게는 승려에 대한 공양이나 각종 불교행사 일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불사의 종류에는 법당불사, 불상조성, 개금불사, 단청불사, 탕화불사, 가사불사 등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이 무량합니다.

“도량이 건립됨은 이 땅을 불국토로 장엄하는 첨경이며, 그곳에서는 무량중생들이 다접에 쌓은 번뇌와 망상과 업장을 녹일 수 있으며, 또 대도를 얻는 갖가지 수행문을 열어 정자의 절정에 오를 수 있으며, 무진한 설법으로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하고, 법륜이 항상 구르는 계기가 마련된다.” 라고 「파제

마경』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대중스님 여러분, 2년 전에 운문사에 대웅전 개금불사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때 동참은 많이 하셨습니까? 개금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탐, 진, 치의 삼독심을 버리는 수행을 닦는 것이며, 탕화를 조성하거나 그 물감을 시주하여도 천상락의 복을 받고 내세에 복덕 구족한 용모의 자손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희 절에서는 천일기도 회향 때면 가사불사를 합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저의 절에서는 두 번의 천일기도 회향이 있었습니다. 가사불사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상품상생으로 태어나게 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복이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 일찍부터 청법(清法)을 만나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날 저에게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지문아! 너는 이 불사한 공덕으로 출가한 것 같다.” 실로 절에서 1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불사를 도와드린 복일까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중스님 앞에서 차례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는 곳마다 불사를 한다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가는 곳마다 불사 중이라 환희심을 냅니다. 복이 있어야 불사도량을 만난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짓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을 지으려는 그 마음이 복을 받게 합니다. 복 중에는 무엇보다 성불하는 복이 제일 큽니다.

보시가 육바라밀의 유품의 덕목이듯 불사 또한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향심과 불심의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탐·진·치로 가득한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정화해 가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복을 짓겠다는 구복(求福)의 마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원력, 부처님의 행, 부처님을 닮아가겠다는 성불의 서원, 구도(求道)의 차원에서 불사를 해 나간다면 과연 그 공덕이 ‘無’일까요?

깨끗해진 도량을 바라보면 마음도 정갈해집니다. 이루어 놓은 것 이면에는 항상 그것을 이루기 위해 훌린 땀방울이 있습니다. 수고로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에 또 그것을 사용하는 많은 이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며 행복을 느낍니다. 불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부처님에 대한 향심과 대중을 위하는 마음이기에 동참할 때에 복이 저절로 함께 합니다.

요즘 운문사도 불사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고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소 번잡스럽더라도 환희와 신심으로 불사에 동참한다면 무량한 복이 될 것입니다.

대중스님 여러분, 무량한 복 지으시고 정진 여일하시길 바랍니다. ☺



2011 청춘토크파티

- 2011년 가을 The 나은 세상을 꿈꾸는 2030세대의 유쾌한 토크파티! -



작년 7월 불교계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문수 스님이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소신공양하신 것입니다. 소신공양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스님의 의지이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문수 스님의 뜻을 이를 추모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 중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은 불교인뿐만 아니라 다 함께 소망하는 일이기에 강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시기인 20대와 함께, 20대의 아름다운 청춘을 대상으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한국청년연합회가 공동주관하여 '2011 청춘토크파티'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존의 많은 강연에서 대학생들을 어느 때보다 힘들고 위로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았는데, 청춘토크파티는 그러한 흐름을 달리하여 대학생들을 변화의 주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춘토크파티는 연사들을 모셔 공존, 정의, 변화, 행복, 희망, 사랑의 여섯 가지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1부 발표세션과 테이블 별로 대화를 나누는 2부 대화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하여 변화의 주체들이 모인 자리로 만들 어나갔습니다.

강연 당일, 먼저 인디밴드의 공연으로 홍보게 시작하였습니다.



| 청춘토크파티 일정 |

일시	학교	(주제) 강사
9월 22일(목)	서울시립대	[The공존]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현 [The정의]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 * 특별손님 박원순 변호사
9월 27일(화)	동국대	[The변화]세금혁명당 대표 선대인 [The행복]배우 김여진
9월 29일(목)	동국대	[The희망]전 KBS 사장 정연주 [The사랑]전 진보신당 대표 심상정

서울의 하늘은 참 맑아/내 츄리닝 바지는 꼬질꼬질/나는 왜 고향을 떠나와/차가운 주먹밥을 먹나(…)/한 평짜리 나의 꿈, 나의 우주/힘내요, 노량진 박, 당신 아직 젊지 않수?/힘내요, 노량진 박 네버 기브업

- 사이의 〈노량진 박〉 中-

구름을 짜서 물 한잔을 데워 놓고/푸른 달빛 시럽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려/(…)/추억을 팔아요 추억을 사세요 다신 잊지 못할 추억을 네게 줄게/시간 지나도 절대 잊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기억되도록/(…)/평생 웃음 짓는 순간을 네게 줄게/지금 날 보는 너의 그 미소처럼 행복한 순간, 그 기억, 기쁨을,

- 일단은 준석이들의 〈추억을 팔아요〉 中-

청춘의 감성을 적시는 인디밴드의 진솔한 노래는 강연장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분위기를 이어서 1부 '발표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강연당 두 분의 연사가 차례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모두들 자신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기에 강연 내용이 청춘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청춘토크파티에 함께해 준 강사 분들을 보면 첫 날, 첫 번째 강사 분은 '공존' 이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현 씨입니다. '박웅현'이라는 이름은 낯설 수도 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KTF),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빈풀), '사람을 향합니다' (SK텔레콤) 등 그가 만든 광고 카피는 모두에게 아주 익숙할 만큼 멋진 광고쟁이입니다. 다음 강사 분은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내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창간한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 씨입니다. 디지털 세대에 언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연호 씨는 먼저 '정의'라는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특별게스트 박원순 변호사와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춘토크파티에는 '세금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모토를 내건 세금혁명당의 대표인 선대인 씨가 '변화'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익대 청소노동자 사건, 반값등록금 1인 시위, 그리고 한진중공업의 해고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사회 참여가 활발한 소셜테이너로 알려진 배우 김여진 씨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춘토크파티가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둔 동국대 편에는 전 KBS 사장 정연주 씨가 '희망'에 대해서, 전 진보신당 대표 심상정 씨가 '사랑' 이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20대와 소통하는 멋진 인생 선배들이 있어 청춘들이 더욱 행복한 청춘토크파티였습니다. 모든 강사 분의 말 하나하나가 소중했지만 저에게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주위 시선이나 비난에 대해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비난에 대해 ‘너는 그게 싫구나’ 하고 끝내세요.” - 김여진 -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로서는 김여진 씨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 글에 웃으며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김여진 씨의 설명은 그냥 무시하라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너는 그게 싫구나’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시선이나 비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위의 시선이나 비난에 대해서 세겨야 할 것은 새기고 점검해야 할 것은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일일이 설명하려 하는 것은 ‘나의 말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꿈꾸고 지금 실천하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뇌리에 박혔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은 혼히들 하지만 그것을 옳게 하려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할 것도 없이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천은 안 하고 늘 생각만 하기에 행복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왜 남들은 잘하지 못하는지 불평하는 데 익숙한 저의 모습이 생각나며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다. 이렇게 연사의 말에 웃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하고 변화의 의지를 다지기도 하는 등 이러저러한 생각할 지점들을 많이 남겨둔 채로 1부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연 후 이어지는 2부는 ‘대화세션’입니다. 친구와 만나면 수다는 떨 수 있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청춘 ‘토크’ 파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의 테이블로 가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학, 연예, 채용방식, 등록금, 바람직한 리더상, 환경, 정치 등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사뭇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그들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을 찾는 것은 집단 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 자체로 좋은 시도이지 않았나 합니다.

또한 이번 강연의 인상 깊은 특색 중 하나는 대학생들이 기획하고 80여 명의 파티플래너(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요즈음 대학생들 중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착안하여 행사의 진행까지 자원봉사의 형태로 하게 되었는데요. 파티플래너의 접수를 받기 전에는 걱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곧



총 80여 명의 인원이 파티플래너를 지원하여 조기 마감하였으니 앞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지원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춘토크파티가 열리는 학교 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같이 발대식을 갖고 실무모임을 갖는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춘을 변화의 주체로 본 행사취지에도 아주 적합한 시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은 ‘열정’입니다. 강연을 함께 기획한 사람들, 파티플래너에 지원한 사람들, 강연을 매번 참석하는 사람들, 토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단에 선 강사들까지. 열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꿈꾸는 것들을 누가 만들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만이 행복한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인드라망의 세계라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복한 길이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일은 두 가지 관점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제 개인의 변화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즐거운 것과 더 편함만 추구하고, 지금의 상태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한 고통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이 바뀌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공장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 마음만 바꾸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죠. 두 가지 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덧 청춘토크파티가 끝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12월은 우리말로 매듭달이라고 한다는데 참 신선하고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체의 임원으로서,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매듭지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1년 동안 배운 것을 통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이 저의 매듭인 것 같습니다. 또, 매듭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의 여러 부분을 서로 얹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간의 경험들을 개별적인 것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얹히게 하여 잘 매듭지을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많은 경험과 수없이 변화하는 마음을 잘 매듭지어 이제 그 매듭이 더 나은 세상, 더 자유로운 우리를 위한 실을 엮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거울을 펼치다

- 초기 불교 수업『부처님 생애』를 읽고 -

유정 / 사미니파

‘과연 내가 부처님처럼 모두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최고의 세속적, 패락을 버리고 출가를 단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한다. 솔직하게 나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나의 회의적인 감수성과 삶을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해준 주변의 상황과 더불어 이런 나에게 불타다는 존재, 나만이 아니라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그의 진리, 수행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의 출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초심자인 나의 삶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이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의 강성조차 잘 조절하지 못하는 나를 알아차릴 때마다 ‘과연 부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걸어갔던 흔적이 25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수행자에게도 이정표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공부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또한 지나치게 신격화되고 우리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수많은 전기들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인간 불타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해야 할 것이다.

1. 기록한 탄생

불교의 창시자인 브다는 2500여 년 전, 북인도에서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싯다르타이며 성은 고타마였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으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외쳤다고 한다.

“천상천하에 오직 나 혼자 존귀하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미망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이 탄생계에 담겨 있는 내용이 부처님이 태어난 이유이고, 불교의 가르침을 잘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당시 신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 중심의 세계관이 불교의 핵심임을 선언한 것이다. 나아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세상과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을 표현하고 있다. 미혹의 세상을 깨달음의 세상으로, 고통의 세상을 대자유의 세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2. 새로운 길, 깨달음의 출가

부처님의 배경은 세속적으로 보았을 때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리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왕위 계승이 보장된 왕자였으며, 건강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부인도 있었고,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도 있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단행한다. 싯다르타가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발심하게 된 동기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일이다. 싯다르타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싯다르타의 생후 7일 만에 돌아가시고, 풍습에 따라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에 의해 자랐지만 심리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열두 살 때의 봄에 농경제에서 삶의 고통스러운 면을 보게 된다. 농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쟁기를 끄는 소의 고통, 보습에 의해 벌레들이 절려나가고 어디선가 날아온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는 모습 등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일이지만 싯다르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세상의 고통을 모르고 자라난 그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누군가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이가 희생되어야만 하는 현실, 세상의 덧없음, 근본적인 인간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사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회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사문유관이다. 이 사문유관은 싯다르타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로 그는 다른 사람의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 또한 그와 같은 삶의 과정을 밟아야만 하는 생사의 모습을 깨뚫어 본 것이다. 그리하여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를 결심한다. 꽃다운 스물아홉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아들, 권력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왕좌를 버리고 영원한 진리의 삶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3. 수행의 시작, 그리고 성도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싯다르타는 선정수행의 대가인 알라라 칼라마, 웃다가 라마풋타라는 두 현자에게 선정의 경지를 배운다. 오래지 않아 그의 스승들과 같은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는 선정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것이 최상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무렵 인도에서 최고의 수행방법이라 여겨지던 고행주의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참으로 혹독한 고행을 했으나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싯다르타는 그가 해 온 고행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고행을 그만둔다. 고행을 뒤로 하고 홀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 싯다르타는 후에 보리수나무로 알려진 펜팔라나무 아래 앉아 불퇴전의 결심으로 마지막 수행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정진한 지 이레째 되는 날, 새벽녘 여명 속에서 빛나는 별을 보고 드디어 큰 깨침을 이루었다. 미혹을 전환하여 깨달음을, 고통을 전환하여 즐거움을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 중의 의사, ‘붓다’가 된다.

4. 최초의 설법과 교단의 형성

깨달음을 얻은 브다는 6년 간 함께 고행했던 5명의 수행자를 최초 설법의 대상자로 정하였다. 그들에게 중도, 여덟 가지 갈래의 바른길인 팔정도와 사성제, 무아의 특성에 대하여 설법하였다. 그들은 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아라한파를 얻게 된다. 이는 불·법·승·삼보가 갖추어지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후 불교 교단은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특히 카사파 삼형제와 그 제자 천 명의 교파로 인해 교세가 확장되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인 사리불, 목건련, 마하가섭 등도 이 무렵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구니 승단의 탄생’이다. 브다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출가하기를 원했으나 그녀는 세 번이나 거절당한다. 여성의 출가하면 정법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여성도 출가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브다의 말씀과 아난다의 권유에 힘입어 여러 가지 규정을 전제로 한 비구니 승단이 탄생하게 된다. 성차별의 문제는 지금도 빈번하게 벌어



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500여 년 전, 봇다는 그러한 차별을 두지 않고 여성도 아라한이 되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회를 여성에게도 주었다. 비록 몇 가지 규정을 두긴 했지만 이것은 남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교단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규정이었던 것이다.

또한 마가다국 빔비사라왕의 벨루나와 정사 기증, 코살라국 수닷타장자의 기원정사 기증 등 초기 교단은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교단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35세에 큰 깨달음을 얻고 길에서 길로,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면서 45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진리를 설하셨다.

5. 열반

부처님께서는 병든 몸을 이끄시고 계속 길을 나아가셨다. 쿠시나가라 교외에 있는 사리숲에 이르러 밭길을 멈추시고, 아난다에게 사라쌍수 아래에 눕고 싶다고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최후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다. 자신의 입열을 통해 몸소 그 역시 무상과 무아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마지막까지 진리의 말씀을 설하신 것이다.

한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알아야 한다. 그가 한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즉, 그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특히 부처님의 삶은 더욱 그러하다. 부처님의 삶과 정신, 인격과 자취가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은 불교의 사상과 정신의 뿌리이며, 우리가 날받아야 할 최고의 수행자이며 인간상인 것이다. 부처님은 투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깨달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셨고, 모두 주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5년 동안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설법 및 교화 활동에 전념하셨다. 부처님의 구도에서 깨달음, 중생들에 대한 뜨거운 자비심에 의한 미라행의 실천이 바로 봇다가 가르친 수행과 희망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사유해 보는 시간을 타성에 젖어 있던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분명 부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희망에 부풀어 출가를 담행한 이상주의자였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 보겠다며 당당하게 속세의 삶을 벗어던졌던 그년 전 나의 모습을 어디로 간 것일까? 부처님이 가졌던 깨달음의 월동력인 투철한 문제의식을 나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가? 교통의 바다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 대한 절절한 연민과 자비심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는 일에 치여 그 때문에 힘들다는 펑계로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사유라는 것은 전혀 해보지 못했던 나의 요즘 모습을 둘이켜보며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계기로 인하여 나태함으로 정절되어 있던 수행자로서의 내 모습을 관조해 볼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내 자신을 다잡을 수 있었다. 그의 삶을 통하여 부처가 되는 길에 첫 발자국을 내디딘 내 마음에 그 어떠한 것에도 굽하지 않는 불회전의 정신을 깊이 새겨야겠다.

조각으로 본 겨울, 윤문





나를 찾아 가는 길, 혼신에서 창조로

- 김선우의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당신이 물었다.』를 읽고 -

세광 /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나 좀 쉬려고요. 좀 지쳤거든요. 일단 쉬고 다시 잘 살아 볼 게요. 알았어요, 좀 쉬고 다시 잘

사랑해 볼게요 삶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어
사람들은 여행을 떠난다.”

잠시 번뇌를 잊고 생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혈력소를 열기 위해 떠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 했던 내게 저자의 위의 글귀는 여행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새로운 혈력소를 열고자 할 또한 잘 살아 보려는 의지이나 거기에 더 강력하게 '삶에 대한 사랑'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제 나도 가방을 꾸려 저자와 함께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여러 해 전 ‘시절 인연’을 기다리며
접어 두었던 인도의 ‘오로빌’이다. 저자에게 오로
빌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인도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스리 오로宾도’와 그의 영혼의 반려자인 프랑스 여인 ‘미라 알파사마 더라고 불림’은 하나의 같은 꿈을 꾸다.

“선한 의지와 진지한 열망을 지닌 모든 인간이 세계의 시민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는 있어야 합니다. 평화와 일치와 조합의 장소, 오직 자신의 고통과 불행, 나약함과 무지, 자신의 한

계와 무능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곳!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영혼과 교감을 잊지 않은 채 온전히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의 조직화와 봉사의 기회가 직위와 직권을 대신할 것입니다…… 예술적 아름다움을 누구나 꿀고루 누릴 것이며, 그런 기회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수용력에 의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쟁과 싸움의 논리에 근거한 사람 관계가 아니라 향상과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관계, 진정한 우애가 대신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어 드림)

‘스리 오로빈도’ 사후 1954년 8월 ‘마더’는 이 ‘꿈’을 세상에 밝혔고, 그 꿈에 공명한 사람들 이 모여들어 ‘오로별’이 탄생한다.

오로빌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숲이다. 좁은 황토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작은 커뮤니티들이 숨은 그림처럼 나타나는데 마치 130여 개의 능금이 올망졸망 달려 있는 직경 5km의 큰 사파나 무 속에 2,10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오로빌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하고자 하는 일이 공

동체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공동체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다. 한번도 뺑 굽는 일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오로빌 뺑집에서 빵을 굽고 싶으면 그러면 된다. 정원에 떨어진 꽃을 주워 모아 ‘꽃 거름’을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오로빌은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정과 성실함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다 수준급의 숙련공이 되어도 월급의 액수는 변하지 않는다. 돈보다 개인의 만족감이 중요하고, 개인의 즐거움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하다. 하루 5~6시간 일하는 시간도 자신의 내면 수양을 위한 요가라 여기는 것이 오로빌 기본사상이다.

오로빌에선 모든 실험이 가능하다. 어떤 제안이 발의되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룹이 생기면서 일이 추진된다.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열린 마음의 자세!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나 관점을 '다만 다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은 맞거나 틀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만, 다름을 조율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인내해야 하는 점은 있다.

오로빌의 현재를 알 수 있는 한 주민과 저자와의 대화이다.

저자 : 왜 오로빌에 오게 되었어?

오로빌리언(주민-20년 전에 옴) : 마더의 '어 드림'

을 읽고 빡 찼어! 오로빌이 맘에 들어?

저자 : 안팎을 동시에 아름답게 하려는 자세가 마음에 듭니다.
오로빌리언 : 아웃사이드는 아름다워졌을지 몰라도 인사이드는 그렇지 않아. 오로빌은 한참 모자라. 문제투성이야. 우린

아주 아주 많이 노력해야 해.

저자 : 저기, 혹시 오로빌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세상 어디에도 파라다이스는 없어. 우린 다만 꿈꿀 뿐이지. 조금씩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꿈꾸고 노력할 뿐야.”

저자는 말한다.

“오로빌의 꿈에 감동한 서구인들이 달랑 배낭 하나 메고 찾아 들어와 맨몸으로 삶터를 일군 것은 그런 꿈에 공명한 결과다… 그 비전은 오로빌 3세 대에 이르는 동안 다른 방식으로 진화 중인 것 같다… 물론 여전히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지만 그것이 1세대 오로빌리언처럼 강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신성의식과 일체성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대한 ‘현신의 자세’가 일상 속에서 내면적 인 충만을 스스로 창조하고자 하는 ‘생활의 자세’로 바뀌어 있다고 할까.”

오로벌이 살아온 거의 10세기의 모습은 내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적지만 웅대한 꿈을 꾸고 그 씨앗을 틔워서 30여 년! 젊가고 있는지 조바심 내어 매일 매일 초심과 비교해 보며 일상을 다 잘던 그 예리함은 어디로 갔는지! 몇 해 전부터는 무디어져 있는 칼날을 보곤 섬뜩 놀라서 이대로 좋을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고 지금도 묻고 있다. 어쩌면 오로벌처럼 나의 삶도 '현신'에서 일상 속에서 내연적인 충만을 스스로 '창조'하는 생활로 바뀐 것은 아닐까? 김선우 시인의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스스로를 자위해 본다. 저자는 오로벌에서 젊음과 희망과



시대의 등불 백용성 선사

경진 / 사미니파



새벽에 청풍료의 문을 열고 나가니 코끝의 바람이 차다. 다시 속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하며 천수대비주를 암송하는데 아직은 눈길 가는 곳마다 끊어져 신묘장구 ~ 신묘장구만 열 번 이상하기도 한다. 큰스님의 일대기를 읽은 후, '그 분이 하셨던 수행 방법으로 공부하면 조금이나마 그 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근대 큰스님이신 용성 선사께서 하셨던 천수다라니를 시작했다.

용성 스님은 1864년 전북 남원군에서 태어났다. 14세 때 꿈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하였다. 하지만 1년 만에 부모님의 손에 끌려와 환속했다가 다시 19세에 합천 해인사 극락암으로 출가하여 화월 화상을 온사로, 혜조 윤사를 계사로 사마십계를 수지 득도했다. 몇 개월 뒤 수월 영민 선사를 찾아가 대비주를 통한 업장 소멸의 수행 방법을 배워 대비주를 지성으로 염송하던 중 한 생각 틱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 23세가 되던 1886년에 확철대오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오도송을 지었다.



金鳥千秋月

洛東萬里波

漁舟何處去

依舊宿蘆花

금오산에는 천년의 달빛이 어리고

낙동강에는 만리의 물결 일렁이네.

고기잡이 배여! 어디에로 갔는가.

붉은 갈대꽃만 바람에 흔들릴 뿐.

스님은 자신의 깨달음에 대하여 당대 선사들께 점검받고 보람의 시기를 충분히 가졌다. 그 후, 승려와 재가신자를 모두 교회 대상으로 삼아 중생 교화를 시작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은 평소에 점검하는 것이 제일임을 강조하며 불교의 생활화를 지도하고, 1911년 48세에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대각사를 창건하여 서울 중앙에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당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시기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불교계도 한국불교를 일본불교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인해 스님들이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승단의 계율과 화합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를 통탄한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뜻을 같이 하여 민족불교획립과 불교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만해 스님은 운영의 실무를 맡고 백용성 스님은 포교 및 설교의 책임을 맡아 항일 불교를 지향했다. 그러던 중 1919년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같이 불교계 대표로 민족 대표 33인의 일원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 동참하여 3여 년의 옥고를 치렀다.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동안 다른 종교인들이 한글로 번역된 종교 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스님은 불교의 혁신과 대중화를 위해 불교 경전을 한글 경전으로 번역하는 일을 원력으로 세웠다. 출소 후 「금강경」을 시작으로 역경 작업을 하고, 역경 조직인 '삼장 역해'를 결성하여 스님께서 입적할 때까지 40여 종 수십 권의 경전이 한글화되었다.

그리고 스님은 식민지 불교의 극복과 한국정통불교수호 및 혁신 운동을 주도하며 대각교를 세우고 다양한 불교 잡지에 기고하고, 만일참선결사, 선학원 창설 등의 중심에 서서 지도하였다. 또한 포교의 현대화로 일요학교를 설립하고 어린이, 학생, 청년, 주부, 거사람 등의 다양한 단체를 결성하고 찬불기를 직접 작사·작곡하고 합창단을 만들었다. 또한 사찰 운영의 방법으로 화파원을 운영하는 등 자급자족의 사찰운영정책을 시도하고, 독립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시 정부를 지원했다.

백용성 스님은 혼란스런 시대의 등불로 살다 1940년 세수 77세, 법랍 61세로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 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일생동안 실천하였으며, 선·교·율을 겸하고, 어떻게 하면 불교의 대중화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한 분으로 근대의 큰 선지식이다.

출가하여 처음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에서 "自罪를 未脫하면 他罪를 不贖이니라"는 한 구절이 내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백용성 선사의 일대기를 읽고 선사께서 수행에 나이감에 첫걸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다. 선사께서는 우리에게 후학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그 공부를 함으로써 중생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목적지가 견성이 아닌 중생을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 앞으로 세상에 나가 포교를 하게 될 때 선사께서 가신 길을 이정표로 삼아 나아가겠다고 다짐해 본다. ◉



학인의 마음자리

- 慶珉 노스님을 찾아뵙고 -
의 영 / 사집과

우리가 도착한 곳은 경주 도지마을이라는 작은 곳이다. 작지만 여러 집채가 모여 아득하고도 멋스러운 시골 정경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 마을의 제일 꼭대기에 우리가 만나 빌 노스님이 계셨다.

경내는 노스님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듯 포근하면서 정갈했다. 인법당 형태의 법당에는 작은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그분만큼이나 온화하고 인자해 보이시는 노스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소승을 만나니 누추한 곳까지 어찌 왔어요?”라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따스한 차와 강냉이, 과일, 삶은 햇밥과 함께 스님께서는 이야기보따리의 끈을 풀어주신다.

노스님께서는 14세에 동산 스님을 친견한다는 친구를 따라 범어사에 갔다가 팔상전의 장엄한 행화와 벽화에 빠져 그 길로 범어사 대성암 혜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다. 한국전쟁과 종단 내 여러 가지 어려운 어수선함 속에서도 논산 정덕사와 순천 선암사, 동화사, 운문사 등에서 공부를 하셨고 1970년에는 한영 스님의 강백을 이으신 성능 스님의 강백을 이어 받으셔서 12년간 강원에서 강단에 서기도 하셨다. 그런 스님께서는 요즘 강원에서 독송을 너무 안 한다고 걱정하신다.

“『치문』과 『서장』은 보고 외워야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별씨 『치문』에서 문리가 나고 문법도 알고 글자도 많이 익히고 해서 치문때 발심을 일으켜 글자 속 하나하나에 그대로 중들이 들어야 해요. 그리고 요즈음 학인들은 모두들 읽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많이 읽어서 내 것을 만들고 그것을 뛰어넘어 미리 머리에 담아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은 있지만 문법에 맞추어 근거를 대고 얘기할 수 없지요.”라고 하시며 사교와 대교는 보는 것이고 『치문』과 『서장』은 배우는 것이라고 일러주신다. 하루하루를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독송을 등한시하는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 강원 졸업 후 진로와 공부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졸업하고 나면 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을 거예요. 온사스님 곁으로 돌아가면 강원에서 상반일 때와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옛날 행자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다 행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강원에서 하심을 한 사람이라면 그리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지 않지만 그냥 내면의 충실히 없이 허송세월 시간만 보낸 사람이라면 천 길 낭떠러지도 그런 낭떠러지가 없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혹은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갈등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순응하면서 인내심을 쌓아서 나를 키워야 합니다. 내가 크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빙긋이 웃으시며 졸업 후의 진로와 공부에 대해 말씀해 주신 스님께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던 비구니 팔경법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스님께서는 몇 해 전 이 경을 한국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번역하셨고 그 번역본이 초기행자교육 자료로 쓰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다고 하셨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비구니스님들도 불끈 하는데 그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원성이 대단했지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대애도비구니경』의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핵심을 집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출가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독경, 염불, 사경, 참선, 그 모든 정진수행의 기본 바탕은 바로 信心과 下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信心과 下心이 충만해 있다면 팔경법이든 팔십경법이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교학적인 면에서 내용 연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 핵심을 알아야지, 다만 말에 떨어져 연구한다면 백날 연구해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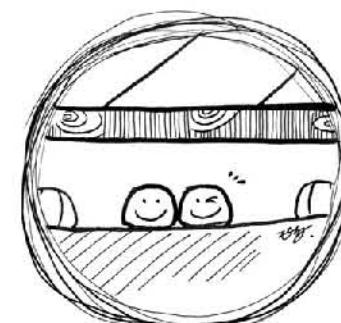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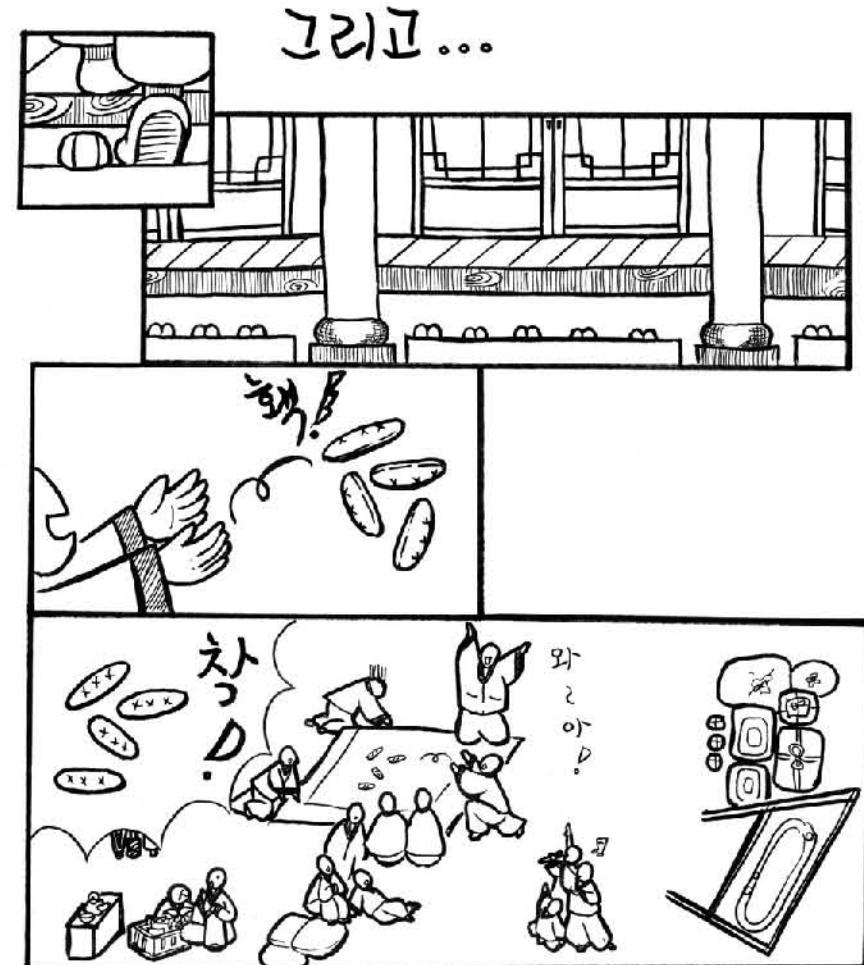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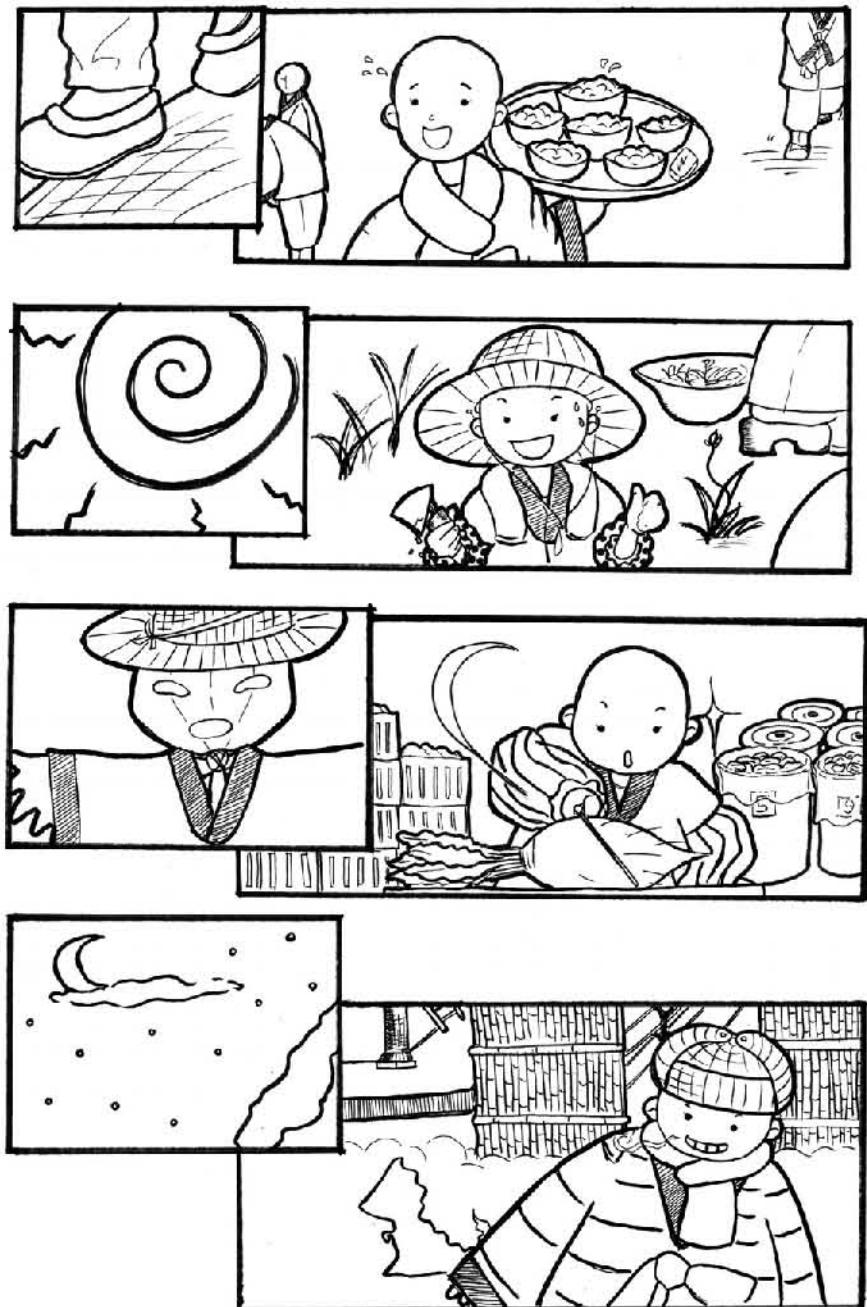
조용히 그 동안의 우여곡절을 따뜻한 한 잔의 차로 웃어넘기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불법에 대한 마음가짐과 스님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願我世世生生處 常於般若不退轉 如彼本師勇猛智 如彼舍那大覺果 如彼文殊大智慧 如彼普賢廣大行 如彼地藏無邊身 如彼觀音三二應 十方世界無不現 普令衆生入無爲 聞我名者免三途 見我形者得解脫 如是教化恒沙劫 畢竟無佛及衆生하여지이다.”

지금도 늘 아침저녁 예불을 모시거나 성지참배를 하실 때에는 항상 이 같은 원을 세우신다는 노스님은 세세생생 이 길밖에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스님으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 수행정진해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해요.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스님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지만 무소의 별처럼 꿋꿋하게 정진여일해야 합니다.”

노스님을 뒤로 하고 산문을 나서며 우리는 스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후학들을 오래오래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감로와 같은 법문을 또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있기를 경내에 있는 자애로운 마애불께 기도드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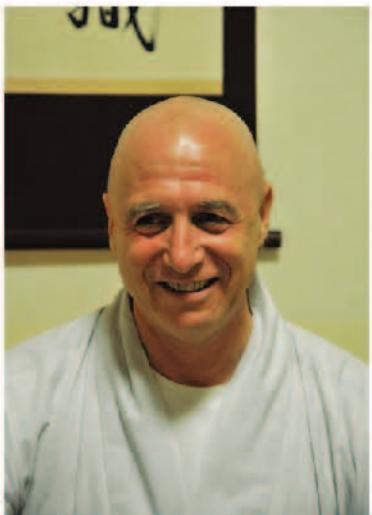
찰! 물는 마무리.
올해도 모두 균녕해졌습니다.

- 거금, 여기, 바로 이 순간... 道에 良가 德 -

What is Love?

-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을 뵙고 -

선지 / 사교파



오늘은 따뜻하고 맑습니다. 아침 공양 후 나와 도반스님 2명, 우리는 대전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무상사 조실스님이 신 대봉 스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무상사는 한국에서 저의 '집'인 셈인데 매번 방학 후 돌아갈 때면, 마음이 가벼웠지만, 이번엔 웬지 걸음이 무거워 먼 곳으로만, 도착하지 못할 곳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남쪽으로 멀리 선지식을 찾아서 진리를 구하러 떠나는 느낌입니다.

오후에 무상사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조실스님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 도반스님은 조실스님의 방을 보고는 너무 작은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어린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상자박스와 같은, 작은 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큰스님'과 '사미니'라는 법랍 차이를 그 상자 방이 소화하기엔 너무 작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 도반스님이 먼저 급하게 '큰스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즉시에 "나이가 너보다 더 많지요.(하하)"하는 웃음과 함께 우리의 인터뷰는 시작되었습니다.

Q1. : What do you think about religion and what is the meaning of Buddhism through religion?

"Who are you?"

"Breathing in and breathing out that is me."

"That's only the action. Who has that action?"
"um....."

Right now, you don't know. That's very good. People say Buddhism is a religion. Most religions believe in something outside of themselves. But Buddhism means find our true self. What am I? True Buddhism needs no label. JUST DO IT Look at yourself, find true nature and help all being. But this is just an explanation. The old Zen Masters only pointed directly to our mind. So I asked you "Who are you?" Finally you don't know. Then only go straight. That is Buddhism.

You don't know what I mean? Correct! That is correct!

Q1. 종교를 어떻게 정의내리시며, 그 중에서도 불교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시는 자가 '나' 입니다."

"그것은 행동일 따름입니다. 그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음....."

자. 잘 모르겠지요. 이 모르는 상태가 아주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불교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종교라고 일컫는 것은 자신 밖의 무엇을 믿는 것이지만 불교는 자신의 참 불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참 불교는 어떤 라벨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할 뿐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 본성을 찾아서 중생들을 돋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설명입니다. 옛 선지식들은 '직지인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마침내 스님은

Q2: Sutra School is a very difficult practicing place. Struggling mind appears moment to moment. So could you please give some methods how to practice there?

PUT IT ALL DOWN! Any idea, any opinion, just put it all down. Then you can make harmony with everything. If you don't know, only go straight don't know. Don't make my opinion. Just keep mind DON'T KNOW and follow the situation. Wind blows, then tree moves. The tree never says "Today I'm tired. I will move tomorrow" Tree has no opinion. Even big storm comes and breaks the tree and the tree dies, the tree has no problem. It would not cry, cry and cry! Human being is the same. If you have "my" opinion inside, then many struggling appear.

When we start correct mind practicing, we always begin with seeing our karma. Seeing our opinion, emotion and thinking. Then what? Put it down. Slowly we can control our opinion, emotion and thinking. Finally one day these opinions, emotions and thinking will disappear, then we can realize our true nature and use our karma correctly to help others. So when the struggling appears in school, at that time you must see your struggling mind and put it down. Keep a mind that doesn't know, then gradually your DON'T KNOW MIND CENTER will become stronger and stronger. Finally you can 100% believe your true self and helping all beings is possible. However everyone has our own karma so it takes time.

Sutra school is not the only struggling place. If you start your practice in Zen hall, Zen hall would be your struggling place; If you are lay person, your living and working place would be your struggling place. Every situation helps us to realize our true nature, to see, control, disappear, attain and use our karma. Sutra school is the beginning place for you to see that. The first few years of practicing always has many difficulties and suffering. That's correct! That's cause and effect!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질문한 스님이 모른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옳아요. 바로 그거예요.

Q2. 강원은 어려운 수행장입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수행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방학차! 모든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오직 그 모르는 마음을 무조건 지켜 나가십시오. 내 의견을 만들지 마세요.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세요.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립니다. 나무는 결코 "오늘 힘드니까 내일 흔들릴 테야."라는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설사 폭풍우에 나무가 꺾여 죽는다 해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마음속에 내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싸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바쁜 마음의 수행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 업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의견과 감정과 생각을 봅니다. 다음에 뭘 할까요? 내려놓습니다. 점점 그 의견과 감정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 의견과 감정과 생각은 없어지고 우리 참 불성을 깨달아 업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곧 남을 돋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원에서 다툼이 생기면 바로 그때 자신의 다투는 마음을 바라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마음을 지켜 나가게 되면 그 '모를 뿐'인 마음의 중심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100%, 자신의 불성을 믿고 중생을 돋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업이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강원만 다툼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선방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했다면 선방도 다툼의 장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재가자에게는 집과 일터가 다툼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참 불성을 깨달을 수 있게 돋고, 또 업을 보고, 다스리고, 없애고, 얻고, 이용할 수 있게 돋습니다. 강원이 그것을 경험하는 최초의 장소입니다. 수행을 시작하는 처음 몇 년은 항상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또한 옳지요! 이것이 인과법입니다.



Q3: Buddhism emphasizes of precepts. Sunim become sunim because we receive precepts. However, Korean sunims seem not as tight as Taiwan sunims in keeping their precepts. The idea and the fact seem to be in contrast.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and what are the influence towards Buddhism and monastic life under this situation?

All Buddhist Sunims take the same precepts but we follow them in three different ways. Firstly Hinayana Buddhism style is body precept. If your action breaks a precept, you break it. If your action breaks one of 4 main precepts then you cannot be Sunim again in this life. Secondly Mahayana Buddhism is mind precepts. If you think about that, you already break the precept. So you must use Buddha's teaching to take away your thinking. Thirdly Zen Buddhism style is not body or mind. "Why do you do any action?" If it's for all beings, even breaking the precept is correct. If it is just for yourself, sometimes even keeping the precept is a mistake. But nowadays because circumstances, many people feel "I'm free; everything I do is for all being" But probably if we look closely at ourselves, that's not for all beings. That's just our desire.

Right now the old Buddhists in Korea have very beautiful devotional mind. People grew up in Korea very poor. So they appreciate the suffering time in the past. Zen master Seung Sahn told us when he was young, they only ate meat 2 times per year on New Year and

Q3. 스님이 되면 계를 받습니다. 대만불교의 경우 계가 현실에서 지켜지지만, 한국불교에서는 계를 지켜야한다는 의무와 현실에서 파리를 느낍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같은 것이죠. 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만약 스님께서는 계를 지키지 못하면 출가생활과 불교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스님들이 같은 계율을 지키지만 다만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킵니다. 첫째, 소승불교에서는 몸이 지켜야 할 계를 강조합니다. 계를 행동으로 어기게 되면 계를 파괴한 것이 됩니다. 만약 4바라이죄 중 하나를 어기게 되면 이생에서 다시 스님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의 계를 강조합니다. 계를 어긴다는 생각만으로도 계는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망상을 없애야 합니다. 셋째, 선불교에서의 지계란 몸으로 지켜야 하는 것도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만약 일체중생을 위한 일이었다면 계를 어겨도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계를 지키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대자유인이다. 무엇이나 다 모른 이를 위한 것이지.'하고 행동합니다만 좀더 가까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일체중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드신 불자님들은 매우 아름다운 헌신적인 마음을 지켜 내려왔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성장할 때는 한국이 매우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과거의 가난한 시절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승산 스님께서 어릴 적에는 일 년에 설날과 생일밖에 고기를 먹지

Birthday. But nowadays Korean people eat meat 2-3 times per day. The old people have the kind of mind to think that if Sunim eats meat, they will get energy. Also many people said if I don't eat meat, I have no energy. I just came from S. Africa. I saw elephants, hippopotamus, Rhinoceros and horses. They are vegetarian but they have lots of energy. Eating meat is only a habit. Don't we believe the karma we make? Most of the animals never live except we raise them just to eat them. They have no natural life of their own. They would not even exist except we make them. This is terrible karma we are making when we make these animals and eat them. We will have to pay back one day with our body. Of course people can do whatever they want but we should understand the cause and effect which is very clear.

Chinese Buddhism is very clear about the precepts, if you eat meat or drink alcohol, no one will support you as a sunim. But Korean, has one part is very nice. They have some human part. If you don't bother anyone, then nobody checks you. But Zen Master Seung Sahn said, "Even though nobody is there, Buddha still is watching you" which means cause and effect is clear. If we act like a layperson and don't understand the human being's situation in this world, why should lay people support us? In the future, nobody will support us. We don't have to be tight or attached to being pure. We can just naturally keep our precepts by sincerely considering what really helps others.

Q4: What do you think about Extra-Terrestrial Being? Do you believe that?

"You are Extra Terrestrial Being. Where did you come from? Maybe you come from different planet. Everything is possible. What do you think about Extra Terrestrial Being?"

"How to propagation of Buddhism? Korean Buddhism always mentions of propagation of Buddhism in the world. If the ET appear in front of us, how to propagation of Buddhism to them?"

Buddha said three thousand worlds which

못했다고 하셨지만 요즘 사람들은 하루 두세 번 고기를 먹습니다. 어른 불자님들은 스님이 고기를 먹으면 힘을 얻는다는 인정여런 생각을 하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코끼리, 하마, 코뿔소, 말을 봤는데요. 이 큰 동물들이 다 채식동물이지만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습관일 따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먹이가 되기 위해 생존합니다. 동물 자신의 자연적 삶이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사육하고 먹는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무서운 업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몸으로 갚아야 겠지요. 당연히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분명한 인과법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중국불교에선 계를 엄격히 지킵니다. 만약 스님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신다면 아무도 스님으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인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대꾸지 않습니다. 승산 큰스님께서는 '비록 거기 아무도 없더라도 그 순간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인과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만약 스님들이 제가자처럼 행동하고 인간의 도리를 모른다면 왜 재가자가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아무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율에 대해 강박관념이나 청정함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일체중생을 돋는 것이 무엇인지 신실하게 생각함으로써 계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습니다.

Q4. 외계 생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스님이 바로 외계인입니다.(웃음) 어디서 왔습니까? 아마도 스님은 다른 행성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지요. 왜 외계인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포교합니까? 한국불교는 늘 온 세계에 포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외계인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포교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삼천대천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



mean three thousand universes. But desire, anger and ignorance are the same, only the culture and structure of consciousness may be different.

If you want to propagate Buddhism, three things are necessary. It is the same whether inside Korea or outside Korea or to beings from another planet. Firstly they have to want to be helped. Secondly you have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ir consciousness. If you go to USA and you only understand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but don't understand American people's consciousness, then you cannot have much success. Thirdly you have to understand their likes and dislikes. Then you can use their likes and dislikes to help and teach them. It is the same with ET. Firstly they want to learn something from us and then we must understand their consciousness. If your mind is pure, you can wake up their interest in learning something. But if you think of teaching them then it would be a little bit like some Christian missionaries. You just sell some idea. You must learn "who are they?", "Who am I?" That's true anywhere.

Q5: What do you think of the status and value of Korean Buddhism among the world Buddhism and the propagation of Korean Buddhism in this world?

I think most people don't really understand Korean Buddhism. Also I think most Korean people don't understand the treasure of Buddhism. The treasure is not technique but the Korean people's love mind. But too much attach to my country then it's hard to connect to others. Most western people want to study Buddhism but don't want another culture. Most importan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not what country Buddhism comes from. Also a person has karma with a teacher and a practicing style. For example some people like Mahayana to find the nature and save all being, or Hinayana to think that never come back.

Around 15 years ago, Zen Master Seung Sahn was in an interview with Korean TV.

는 뜻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세계에서 탐·진·치는 다 똑같이 존재하고 다만 문화와 의식구조가 다를 뿐입니다.

만약 스님이 포교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나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도움을 원하는지, 두 번째는 상대의 의식구조를 아는지입니다. 만약 포교하려고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의 의식만 알고 미국 사람의 의식을 알지 못하면 포교는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돋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외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외계인이 우리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음은 그 외계인의 의식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스님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려 들면 기독교 선교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파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님은 반드시 "그들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디에서나 진실입니다.

Q5. 세계불교 가운데에서 한국불교의 위치와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불교의 세계 포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조차 불교의 귀중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물적 가치는 어떤 테크닉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사람의 "인정"입니다. 하지만 '내 나라 것'에 지나치게 집착 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나라로부터 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스승과 수행법에 인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불성을 찾고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 생에 이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소승불교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5년 전, 어느 한국 TV 대담 프로그램에서 송산 쁘

They asked him about his work spreading over around the world. Zen Master Seung Sahn said, "Every country has its own culture. Every country is proud of and loves its culture. If I went around the world and just taught Korean Buddhist culture, then few students would follow me. I only taught the bone of Buddhism. Then slowly each country will make their own Buddhism fresh." It just like Indian Buddhism went to China, it changed to Chinese Buddhism; Indian and Chinese Buddhism came to Korea, it changed to become Korean Buddhism. So the Korean Buddhists take a live teaching to the people in other countries, it will slowly change to become that country's Buddhism. That is natural process.

Buddha's teaching is not depend on form and culture. Just your heart connect to somebody's heart is important. First connect mind to mind then they can enjoy and learn from whatever your root is and wherever you come from. Now you are young, so don't worry about how to spread Buddhism over the world but how to make your own practice alive. That is most important.

스님께서는 세계 포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는 각기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한국불교의 문화만 가르치고 살다면 나를 따른 제자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불교의 기본 뼈대만 가르쳤고 나라마다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의 삶을 자신들의 불교에 불여 나갔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갈 때 중국불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불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님들이 다른 나라에 생생하게 포교하면 점점 그 나라의 불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형식이나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뿌리가 어디에 있든지, 스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상관없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어떻게 세계 포교를 이를지 걱정하지 말고 자신 수행정진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뭔가요?", "네가 나에게 묻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대봉 스님께서는 세 시간 반 동안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다 지우고, 다만 인상 깊은 것을 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放下着 이 제 마음에서 떠올랐습니다. 쉽지 않지만, 難行能行이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직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구제함이 수행자의 나이갈 방향입니다. 마지막 이 게송을 통해 도반스님과 서로 서로 격려합니다. ◉

恒用戒香塗瑩體
常持定服以資身
菩提妙華遍莊嚴
隨所住處常安樂

항상 계향을 써서 빛나는 몸을 삼고
늘 선정의 옷을 지녀 이 몸을 도우며
보리묘화로 두루두루 장엄하여
머무는 곳마다 한결같이 안락케 하소서



대봉 스님은 미국인입니다. 1977년에 송산 쁘스님을 미국 뉴헤이븐 선원 법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 송산 쁘스님의 지도 아래서 수행했습니다. 1984년에 출가하여 1992년 송산 쁘스님에게서 깨달음을 인정받고 1999년 전법계를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의 조실을 맡아 온 세계 사찰의 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뱌잡이수리

나희덕 / 시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나는 두 가지 동물을 떠올리곤 한다. 하나는 깊은 산 속에 사는 초식동물인 영양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독수리인 뱌잡이수리다. 두 동물은 몸집이 제법 크지만 사자나 호랑이 등과 같은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맹수의 습격에 대처하는 태도에 있어서 영양과 뱌잡이수리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영양째각(羚羊掛角)'이라는 중국의 고사에 잘 나타나 있듯이, 겁이 유난히 많은 영양은 천적의 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낭떠러지 끝의 나뭇가지에 그 뿔을 걸고 잔다고 한다. 실제로 영양의 뿔은 앞으로 둥글게 구부려져 있어서 나뭇가지에 고리 모양으로 단단하게 걸 수 있다. 그렇게 뿔을 걸고 허공에 뜬 채 잠을 자기 때문에 맹수들이나 사냥꾼은 영양을 쉽게 찾아낼 수가 없다. 또한 영양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이나 냄새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의 시론가인 염우는 「창랑시화」에서 '영양째각(羚羊掛角)'이라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좋은 글이나 문장의 흥취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든 발자국이 끝난 곳에 영양의 존재가 있듯이, 진정한 시는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 곳에 존재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처럼 '영양째각'은 글쓰기의 묘오(妙悟)한 경지를 비유할 때 쓰이는 말이다.

어찌 보면 영양은 고단하기 짹이 없는 운명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 덕쳐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늘 깨어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영양의 큰 미덕이다.

그에 비해 뱌잡이수리의 위기관리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뱌잡이수리는 독수리파에 속하는 맹금류로서, 평소에는 평야나 사바나의 뱀이나 두더지, 쥐 등을 잡아먹으며 산다. 생존하는 조류 중에서 육상에 서식하는 유일한 새이기도 하다. 이런 습성 때문인지 뱌잡이수리

는 육상에서 사자나 호랑이의 습격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만 잊어버리고 만다. 너무 다급하면 바로 곁에 있는 손쉬운 해결책마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뱌잡이수리의 용맹함이나 날렵함도 그 순간에는 무기력해지고 만다. 자신이 가진 두 날개를 펴서 가볍게 날아오르면 될 것을 뱌잡이수리는 결국 두 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둘 중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던가. 허둥지둥 쫓기는 뱌잡이수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자문하게 된다. 작은 어려움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냈던가.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일을 지레 포기한 적은 얼마나 많았던가. 또는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렸던가. 그리고 보면 뱌잡이수리의 어리석음을 마냥 탓할 수만도 없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나 숨어 있는 저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다. '질풍경초(疾風勁草)'라는 말처럼, 세찬 바람이 불어봐야 억센 풀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법이다. 상황이 순조롭고 승승장구할 때 아름답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다. 하지만 자신만만해 하던 사람도 갑자기 닥친 위기 앞에서는 여유와 균형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바로 그때 더 침착하고 참을성 있게 대처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브라이언 트레이서는 「크런치 포인트」에서 성공의 비결이란 우리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브라이언 트레이서는 그 비결로서 위기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침착한 대응,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계약 요소들의 인정, 창의적인 발상과 집중적인 노력, 우선순위의 명료한 결정 등을 들고 있다.

나는 세간에 나와 있는 성공전략 지침서들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 실용서들이 전파하는 메시지들, 즉 자기 자신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결함과 한계를 인정하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는 것, 나뭇가지에 뿔을 걸고 자는 영양에게서 배워야 할 미덕은 바로 그것이다. ●



나희덕 시인은 1989년 「중앙문예」「뿌리에게」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어두워진다는 것」, 「사라진 손바닥」, 「야생사파」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통의 물」,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더 레터」 등이 있다. 소월시문학상, 이상문학상,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문학부문, 김수영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백씨로 살기

현우 / 대교파



현우

앞산 뒷산이 겹겹이 중첩되어 장엄한 물결처럼 다가오고

소나무 군상들은 마치 호법 신장처럼 도량을 외호하고 있는 운문사에서

백씨스님*은 그 자체가 소임이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되며 제약도 따르고

다양한 멘트, 차례법문, 첫 논강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일에 무조건 첫 번째다.

차례법문……. 흰 목수건, 흰 양말 등등의 인수인계사항 중에는

'우황 청심환을 미리 챙겨서 먹는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멀리는 시간인데

다른 것은 어른스님, 대교반, 사교반 순으로 하면서 차례법문만은 왜 치문반 스님들부터 할까?

이해로는 알 수 없는 치문 첫 철,

봄방학에 집에서 몸무게를 채었더니 6kg나 줄었으니 마음도, 마음도, 줄였으렷다.

사교 첫 철 원주소임.

원주스님의 행동반경 안에는 선열당 다락, 냉장고, 저온창고, 장독대 등등

원주스님 다락은 운문사 살림살이의 총망라 집합장소인데

첫날 상반스님이 홍두깨나 큰 소쿠리가 아닌 이쑤시개를 찾으신다.

'오호라 통재라'로 시작된 원주소임.

여름에 어른스님들 풀웃 할 쌀풀가루 만들기
재파를 씨와 분리해서 씨는 버리고 껍질만 남겨두기
틈틈이 택두를 해둬야 콩나물을 키운다
콩나물은 물만 준다고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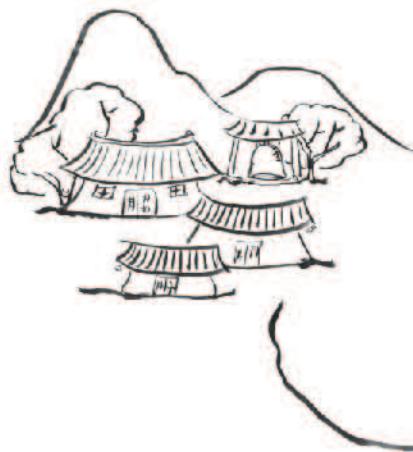
바깥 날씨가 추워서 방에서 키우는데
그 냄새, 같은 방 별좌스님들에게 미안하다
흔히 자는데 부스럭 거리며 물도 주어야 하니 분주하구나
조금만 소홀하면 빼치고 잔가지를 뺀으며 시위한다
물을 주려 검은 천을 들추면 재잘재잘 잘도 떠든다
좁은 속에서 불만도 많겠지만 서로 양보하며 노랗게
소복히 크는 것을 보면 도반스님들 같다.

조왕불공 날이면 작은 시루에다 떡을 안친다
떡을 안치기 전에 정랑을 다녀온다. 중간에 가면 뜸이 안 든다고 한다.
대중스님들 찰밥 먹는 삭발날, 며칠 전부터 밤도 치고 은행도 까고 해서 나온 원주스님의 찰밥.
다양한 공양물도 나눠야 하고
참으로 사부작 사부작 소리없이 운문사 도량을 종종 걸음치는 나날.

운문사의 백씨스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한 바가지의 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하면 처음엔 흙물이 흐르다 맑은 물이 나오듯이
처음 한 바가지 물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듯 그런, 맑은 물이 되어야 한다.

인생을 살다 뒤늦게 발심해서 어린스님들과
한 올타리 안에서 사노라니
본인 앞가림하기도 벅차서 전전긍긍하였으니
도반스님들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

* 강원 한 반에서 세남이 가장 많은 스님을 일컫는 말이다.



눈물의 편지

선학 / 사집파



새벽 3시, 추위에 떨며 도량석 목탁이 올라간다. 운문사에서의 하루 시작을 알리는 목탁소리. 사집 거울이 된 지금도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든 나로서는 추위에 그냥 못 이기며 잠에서 빠져 나오곤 한다.

내가 삭발을 했던 때도 이와 같이 매서운 날씨의 새벽이었다. 그저 어려서부터 키워 주신 노스님과 은사스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출가를 결심하였다. 한마디로 心出家가 아닌 身出家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출가 후 내 모습은 출가 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출가한 지 5일이 지났을까? 노스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나에게 3개월 동안 대중스님들이 많이 계신 큰절로 가서 많은 걸 보고 배워 오라고 하셨다.

처음엔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적이 없었던 나는 무섭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의 생활과 낯선 대중들과의 생활이 두렵기도 했었다. 하지만, 나는 혼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주어진 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나를 나타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보다 다른 곳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3개월은 금방 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혼쾌히 간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른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님들께서는 어린나이에 출가했다고 예뻐해 주시고 실수하는 것에 그려려니 이해도 해주셨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행자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잠은 자도 자도 더 자고 싶은데 매일 같이 새벽 3시면 눈을 떠야 하고, 훈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라 했던가. 윤통 한문으로만 쓰여 있는 책을 외우고 읽고 해석해야 하고, 항상 염불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입에서 멜 수 없었으며 어른스님이나 소임자스님들이 시키는 일은 “네.” 하고 해야 하는데 하루는 별좌스님께 “싫어요.” 했다가 옆에서 듣고 계셨던 공양주스님께 전방진 행자라고 놀림을 당한 적도 있었다. 시자 살 때 일이었을까. 총무스님께서 나에게 풀옷을 주시면서 “이거

풀 좀 먹여놔.” 하시며 가셨다. 왜 그때 풀이라는 말이 물이라고 들렸을까. 나는 그래서 열심히 분무기로 옷에 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총무스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시고는 기가 차신 듯 웃으시며 “누가 물 먹이래~ 풀 먹이라고 했지~”라고 하시며 웃음이 떠나지 않으셨다. 이렇듯 집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척척 해나가야 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번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매일 저녁예불이 끝나고 법당의 달력을 한 장씩 한 장씩 찢으면서 하루하루가 빨리 가서 얼른 집에 가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다.

행자로 들어온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아직 대중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내 자신을 보며 눈앞에 보이는 노트에 노스님께 편지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 후, 기다리던 노스님의 답장이 왔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는 순간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3개월이 아닌 사미니계를 받고 난 후에 오라는 것이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한다니 눈앞이 깜깜해졌다. 한참 동안 나는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음이 좀 진정되고 보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낯선 곳에서의 행자 생활이 힘들어서였을 것이다. 울력을 하고 난 뒤 항상 “피곤해, 힘들어.”라는 말은 기본이었다. 아마 노스님 계시는 절에서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지내웠었던 것 같다.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즐움이 찾아올 때면 항상 몸에 이끌려 생활했던 나였던 것 같다. 이런 나에게 「선가귀감』의 한 구절이 내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평하고 한가함을 구해커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커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커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견지기 위해커이다.

항상 이 글을 생각하며 중노릇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수행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깊숙이 다짐 또 다짐을 해 보며 나는 오늘도 운문사에서의 후회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



설익은 은행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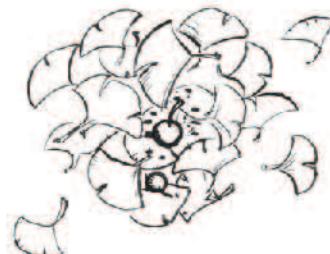
지 산 / 사미나파

세월은 누군가의 재촉을 받지 않고도 저 혼자 흘러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텁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를 둉여매고 운문사 학인으로 발을 디딘 지 벌써 1년. 치문이 끝나간다. 한 손에는 토시를, 한 손에는 초코파이를 감추고 울력 장소로 달려가야 하는 헐떡거림도 끝나간다. 한번쯤은 꼭 겪어봐야 될, 그러나 꼭 한번만 겪고 싶은 치문반. 나와 같이 입학했던 30여 명의 도반들은 이 격동의 치문반을 지내면서 가슴에 무엇을 남겼을까?

서투른 봄철이 지나고 여름철 나의 소임은 '부반장'이었다. 어려울 것 없지만 작고 소소하게, 한 번 더 손이 가야 하는 울력 준비, 정리 및 공양물 담당이 나의 과제였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부터 내 마음은 빼걱 거렸다. 나의 부정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생각 때문이었다. 할 일은 태산처럼 많고 시간은 촉박하다고 느껴졌다. 많은 장화와 호미가 원망스러웠고 많은 찬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많은 공양물이 원망스러웠다. 이러한 마음으로 반 철을 살았다.

항상 투덜투덜, 난 '부정 지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의지한 사람은 반장스님! 무슨 일이 있든지, 고민이 있으면 난 반장스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반장스님은 들어주었다. 그럴 때마다 반장스님은 항상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관(觀)하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다고 했다. 지금의 내 마음도, 내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들도 결국 변하여 항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생각을 들이켜보니 맞는 것 같았다. 별식은 매일 있는 게 아니라. 공양물은 있는 날만 있고 없는 날은 없었다. 찬상 닦기도 쉽게 끝나는 날이 있었다.

이런 변해 가는 상황을 보니 나 역시도 변해 갔다. 가끔은 먹다 남은 과자봉지에 진심(眞心)이 일어나긴 했지만 잘 먹는 우리 반 스님들을 보고 흐뭇한 마음을 냈다. 그리고 나의 역할들을 좀더 즐겁고 쉽게 할 수 있었다.



온사스님의 말씀도 생각났다. "부지런히 계으름 피우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모두가 너의 재산이다.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빨리 생각을 바꿔 긍정을 찾아라."라고 늘 말씀해 주셨다.

항상 염두에 두었던 온사스님의 말씀도, 항상 챙겨야 하는 내 마음도 이제야 찾았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여름 한 철을 보내고 나니 아쉬움도 남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에 한 계단 높이 올라온 느낌이었다. 상쾌하고 뿌듯했다.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구나' 싶었다.

부반장 소임이 끝나는 방학 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입학 하던 날, 처음으로 나를 맞이해 주었던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낯선 강원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입학 하던 내게 오백년의 세월을 초연히 서 있었던 나무, 남모르게 내가 의지했고 나를 격려 했을 나의 첫 도반을 바라보았다. 나는 헐레벌떡 떠들썩하게 한 번의 소임을 살았지만 저 은행나무는 오백년을 신음 한번 없이 묵묵히 살았구나 싶었다. 그 순간 나는 내 결망 속에서 장애 없이 지나온 여름철 부반장으로서의 뿌듯함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람에 떨어진, 형체도 채 갖추지 못한 은행열매 한 개를 주워 넣었다. 이 설익은 은행은 고단한 여름철 내 작은 노력을 격려하는 노목(老木)의 큰 선물인 것 같았다.

그렇게 부반장 소임을 마치고 가을, 그리고 겨울이 왔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치문반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소임이 끝난 후에도 가끔씩 생각을 해 본다. 여름에 부반장 살기를 잘한 것 같다고. 나와 함께 한 인연도, 내가 했던 일들도 모두 좋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회도, 아쉬움도, 만족도 함께 다가온다.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가 나의 숙제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님 곁에 다가서기 위한,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묵묵히 헤쳐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즐겁게 해 나갈 자신이 있다.



삶의 매듭, 죽음

편집부

늦가을, 무더기로 내리는 낙엽비는 떠남을 연상시킨다. 그렇게 무더기로 내린 낙엽마저도 어디로 가고나면 겨울이다. 양상한 나무, 그것 또한 나무의 본래 모습이다. 겨울은 그렇게 산, 나무, 일상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더욱이 추위는 활동보다는 우리를 사유하게 한다.

2011.12.02. 비구니계원로이며 경기도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장이신 묘엄 스님께서 입적하셨다. 1931년 진주에서 태어난 묘엄 스님은 1945년 5월 성철 큰스님을 계사로, 월혜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운허 스님과 경봉 스님에게 교학을 배웠으며, 1966년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스님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71년 봉녕사로 자리를 옮겨 1974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개원하여 30년간 700여명의 비구니스님을 배출한 묘엄 스님은 사미니 승가대학의 양대 산맥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입적이 ‘청담 스님의 딸, 성철 스님의 제자’, ‘비구니 최초 강사’ 등등의 스님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쓸쓸하거나 허전하거나 슬픈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올 한 해 가까이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태고사의 도천 큰스님께서 입적하셨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엔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셨다. 법정 스님의 열반은 많은 사람을 슬프게 했다. 오열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이 TV화면에 비춰졌다.

큰스님들의 입적 소식에 오열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은 때론 생소하다. 스님들의 경우, 눈물을 잘 흘리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상황에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슬픔에 깊숙이 빠지는 사람, 무덤덤한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 슬픔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죽음이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나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무덤덤한 사람은 감정 조절이 가능하거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스님들의 경우 죽음이란 소식 앞에서 거의 무덤덤해 보인다. 그 무덤덤함은 감정의 절제에서 나옴인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나옴인가.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죽음 생각(죽음관)을 많이 닦아 익히면 반드시 큰 결과와 큰 이익을 얻는다. 어떻게 비구가 죽음 생각 닦아 익히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큰 이익을 얻는가. 이 비구가 죽음의 생각을 가지고 일념의 깨달음의 요소를 닦으면 멀리 떠남과 욕심 없음과 없어짐에 의하여 열반으로 나아가며, 법 분별·정진·법 기쁨·쉼·선정·평온의 깨달음 요소를 닦으면 멀리 떠남과 욕심 없음과 없어짐에 의하여 열반으로 나아가느니라.’ (수사념경, 742)

이렇듯 우리는 죽음관도 하나의 수행으로 삼기 때문에 ‘죽음’이 친숙한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무상함을 배운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상함 수행이 존재의 가장 확실한 무상인 죽음 앞에서 토목와석(土木瓦石)과 같이 감정을 없애는 수행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무상함을 관하고 연습하고 이해한다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이란 감정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통곡할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울지 않을 일도 아니다. 이론으로 수행으로 무상을 공부했다 해도 우리는 심장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돌아보자, 당신은 수행이란 이름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울어야 할지 묵묵히 떠나 보내야 할지 그것이 수행의 척도는 아니다. 그러니 우는 수행자이든,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는 수행자이든 걸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감정을 감춘다거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초심자의 면도날같음으로 수행의 상을 지어, 감정을 메말리는 수행이 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보자. 그리고 내 잣대로 ‘수행’이라는 허명을 들이세우고 있지는 않았나 살펴보자. 여기 한 사람이 살다 떠났다. 그대 그 사실에 슬픈가. 슬프면 단지 그 슬픈 마음을 볼 일이다. 초심자를 유혹하는 ‘무심도인’의 허명에 빠지지 말고 살아있는 수행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좀 더 감정과 시간에 자유가 있었다면, 고인께 꽃 한 송이 올려 드렸을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장 대중율력



▲결계 포살 법회



▲마가 스님 특강



▲봉녕사 모임 학장스님 입적 조문



▲제6회 학인논문 시상식

운·문·소·식

- 11월 10일 겨울철 개학공사 및 동안거 결계 제사가 있었습니다.
- 11월 11일 요가수업과 염불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11월 17일 화재예방 소방훈련이 비로전을 중심으로 한 도량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18일 제 10대 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이·취임식이 있었고, 8년간 회장의 중책으로 근념하신 학장스님의 이임식에 어른스님과 윤원·한문불전연구원스님들이 비구니회관에 다녀왔습니다.
- 11월 19일 대구 영남의과대학 김성규 교수님의 '초기불교'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1일~22일 겨울 준비로 김장 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26일 대구 한의대학교 박홍식 교수님의 '화랑정신과 세속오계'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6일~27일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제 52차 전국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교회부 스님 30명이 다녀왔습니다.
- 12월 2일 겨울철 포살 법회가 대웅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포살 법사는 일진 주지스님께서 맡아주셨고, 산내 암자스님들도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3일 마가스님의 '자비명상'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4일 봉녕사 묘엄 학장스님 입적에 어른스님과 윤원 스님, 대교반 스님들이 조문 다녀왔습니다.
- 12월 5일~6일 윤원, 한문불전연구원, 화엄반 스님을 대상으로 송광사 윤주 지현 스님의 '입보리행론' 특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8일~14일 윤원스님 8명이 6박 7일간 미안마로 졸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12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주최한 제 6회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공모전에서 사교반 선학 스님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12월 11일 오백전 100일 기도 회향에 일진 주지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 12월 16일 대교반 스님들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9일 겨울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20일~23일 동지행사로 3박 4일간 임시 휴강하였습니다.
- 12월 31일 '성도제일'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철야정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 1월 6일 보현율원 제 3회, 승가대학 제 48회 졸업식이 대웅보전에서 거행됩니다.
- 1월 12일~2월 17일 35일간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 1월 13일 신입생 입학시험이 오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동·문·소·식

* 제 18회 동문회 임원진 명단입니다 *

- | | | |
|--------------|----------------------|---------------------|
| • 회장 : 우송 스님 | • 부회장 : 장하 스님, 정심 스님 | • 감사 : 서운 스님, 명은 스님 |
| • 총무 : 성찬 스님 | • 재무 : 정수 스님 | • 서기 : 지인 스님 |

도와주신 분

- 활수진 불자님 · 최미옥 불자님 · 설문숙 불자님 · 이재희 불자님
- 이기태 불자님 · 심재근 불자님 · 신현섭 불자님 · 이화진 불자님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0-7139

| 등 불 |



그림 / 이운수(17회)

봄날 벚꽃도 피기 전에 이웃나라의 지진소식으로 시작된 올 한 해가 저듭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또는 해는 똑같은 해이지만 우리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한 해를 매듭지어 기억이란 상자 안에 담아놓고 새로이 시작하곤 합니다. 똑같은 해가 똑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늘 한결같은 계간 「운문」이 또한 늘 같지 않은 이유 또한 매 해마다 근념하신 부장스님들 때 문일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근념하신 前 부장스님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어받은 계계도 이제 세 철이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집착이 되지는 않게 걸어 갈 일입니다. - 海

운문사의 매서운 날씨를 잊게 해준 기특한 녀석... 119호 운문지를 발행하면서 이러한 작은 계간지 하나가 때로는 옳고 웃음 자을 수 있는 도반, 학식을 풍부히 높여주는 스승, 한 걸음 쉬었다 가라고 어깨를 들여세 내어주는 인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강원의 계간지일 것이며 또한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간지가 되겠지요? 문득...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 祐

〈이와같이 들었다〉는 결제법문이 있어 쉽니다. 〈운문 칼럼〉은 연재를 마쳤고, 〈나를 찾아가는 길〉을 내리고 〈자유기고〉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유기고〉에서는 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수업 자료, 여행기, 인터뷰, 영화비평 등등 스님들의 글에 한해서 자유 형식의 글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실로 문의바랍니다.



내 삶은 내 뒤에도 내 앞에도
현재에도 없다
삶은 그 안에 있는 것.

자끄 프레베르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기율호·통권 제119호·2011년 12월 26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승가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진광·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 편집장·덕해 / 편집위원·덕녕, 영조, 미가, 정원, 호암, 민우 / 사진·편집부 / 삽화·승이
편집디자인·청미디어 (02)2285-3366